

# 성경 공과

제1권

성장반 (Advance Class 1)



물에서 건져지는 모세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1권

Advance Class 1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ANITA STURGES DOLE  
*(Mrs. Louis A. Dole)*  
1889-1973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1권 제4반, senior class만을 가지고 Advance Class 1으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는 지상의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해주는 사다리입니다.(창세기 28장 12절) 따라서 성서를 꾸준히 읽는 것, 또는 베껴보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이유가 성서의 글자는 예수의 걸음자락 처럼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정성어린 성서 읽기라 할지라도 성서가 불합리하게 기록된 듯 여겨지는 부분은 피할 수 없이 발견되고 이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의 기록에 사용한 언어인 상응(correspondence)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성심있는 성서 읽기를 계속하시는 분들에게 얼마간의 상응 지식을 전달하여 성서 글자가 함유한 속뜻을 살필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영혼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결국 주예수의 품위가 여러분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생활에 있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읍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번역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일뿐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한 해석에는 직역이 필요한바 다른 성경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에서 찾아 보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오로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 제 1권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장 1-3절	9
2. 에덴의 동산	창세기 2장 8-25절	15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창세기 6장	20
4.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26
5.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1-21절	31
6. 야곱과 에사오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37
7. 요셉과 그 형제들	창세기 37장	44
8.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50
9.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55
10.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62
11.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67
12. 발람	민수기 22, 23, 24장	73
13. 예리고 성의 정복	여호수아 6장	82
14. 드보라와 바락	판관기 4장	88
15.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2장 1-11절	94
16. 사울을 선택함	사무엘상 9, 10장	100
17.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상 16장	107
18.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12
19. 엘리야와 아합	열왕기상 17; 18장	118
20. 아사왕의 통치	열왕기상 15장 9-24절	128
21. 시편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2절; 시편 1편	132
22. 이사야를 부르심	이사야 6장	136
23. 활활 타는 화덕	다니엘 3장	142
24. 예언자 미가	미가 6장	148
25. 성전의 재건	하개 1장	152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마태복음 1:18-25; 2:13-23	156
27.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15절	162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장	167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4장 1-11절	172
30. 주님의 첫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2-25절	177
31. 산 위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	181
32. 주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8장	190
33.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196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복음 17장	202
35.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27절	207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마태복음 26, 27장	212
37.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223
3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장	228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 2, 3장	234
40.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 22장	242



# 1

## 창조에 관하여

### 머리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다. 주님께서 그 저자이시며 그 속에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첫 권은 「창세기」로써 “시작”이라는 뜻이다.

「교리 요점」은 공부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바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단지 어느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요점은 교회의 4가지 기본 원칙이 되는 4 교리인 주님, 말씀, 믿음, 생활(charity)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장 1-3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 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낚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옛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서는 옛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 \*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에 관한 것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계시이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 \*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는 어떤 진정한 선도 행할 수 없다. 모든 선은 주님에게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 상응 공부 (Correspondence)

빛 = 진리

물 = 진리

마른땅, 땅, 대지 =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경험  
 식물계 = 우리의 생각들  
 동물계 = 우리의 감정들  
 암흑 = 무지  
 해 = 주님을 사랑함,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옴.  
 달 = 주님을 믿음  
 별들 = 천국에 대한 지식  
 창공 위의 물 = 영적인 진리 즉 영혼의 삶을 위한 진리  
 창공 아래의 물 = 자연적인 진리 즉 세상의 삶을 위한 진리

## 해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인 듯 보이는 것들 중 창조 이야기가 그 첫 번째로 대두 된다. 발전된 과학 문명의 주장은 우주의 형성은 150억 년 전에, 그리고 지구의 형성은 45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실험적 증명들도 함께 내세운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따라서 그것을 포함한 성경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자연과학이나 또는 사람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성경은 하느님과 그분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적 사물을 통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창조 했고 또 오늘날 우리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설사 동물과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 하더라도 결코 단순한 고등동물이 될 수는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물질적인 하늘과 땅이 아닌 사람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에 살기에 알맞은 육체와 정신(땅)을 가졌고, 또 하느님과 영적인 세계의 삶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면(하늘)을 가진다.

갓난아기가 어떠한 지식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처음의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영적인 면과 자연적인 면 모두 발달하지 못했었다. 사람의 아기는 다른 동물들의 새끼와는 달리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장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대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상응으로 설명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 단계(첫째 날)는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의식 또는 자각이 시작되는 때이다. 이것은 볼 수 있는 능력 즉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사물을 구별하게 되고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연상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마치 구별 능력이 생긴 아기가 부모나 친지들을 알아보게 되고 노는 것, 웃는 것, 그리고 무엇이 그를 즐겁게 하는가를 인지하게 된다. 둘째 단계(둘째 날)는 어떤 일들 즉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과 삶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더 존재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는 천국적인 삶을 위해 기초가 되는 선과 악에 대한 초보적인 구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단계(셋째 날)는 주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무엇이 행동과 생각의 원인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한다. 넷째 단계(넷째 날)는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처음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게 되고 또한 그를 위해 일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 해와 달과 별은 각각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묘사한다. 다섯째 단계(다섯째 날)는 세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여섯째 단계(여섯째 날)는 선한 일을 향한 강한 애착이 생기며, 이에 따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르침에 따라 삶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독립적이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의 「Arcana Coelestia (천국의 신비)」의 첫 권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도 부르는가?
- 4) 성경의 처음 말씀은 무엇인가?
- 5)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세상과 모든 것이 창조 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7) “날”은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하는가?
- 8)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9)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10) 셋째 날에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 11) 셋째 날에 무엇이 새로 창조 되었을까?
- 12)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을까?
- 13)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 되었을까?
- 14) 몇째 날에 동물이 만들어졌을까?
- 15) 무엇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까?
- 16) 인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을까?
- 1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하셨을까?
- 18) 주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 19) 주님이 첫 장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 20)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 질문의 답

- 1) 성경
- 2) 하느님
- 3) 주님의 책, 말씀, 생명의 책
- 4) 한 처음에
- 5) 창조
- 6) 육일
- 7) 아니다
- 8) 빛
- 9) 창공
- 10) 바다와 마른 땅
- 11) 풀, 나무들

- 12) 해, 달, 별들 13) 물고기, 새들 14) 여섯째 날 15) 사람 16) 하나님  
17)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19) 우리의 영적 성장 20)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 2

# 에덴의 동산

### 머리말

창세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2장: 8.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 교리 요약

- \*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 여러 평면에 적용된다.
- \* 우리에게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과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선을 찾지 말고 항상 주님께에서 그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응 공부

강 = 주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오는 진리  
나무들 = 일반적인 원리들  
생명나무 = 주님의 선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원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스스로 슬기롭고 선해질 수 있다는 원리

## 해설

상응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에덴의 동산이 순수함과 행복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주님께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덴의 동산은 땅위에 존재하던 동산이 아닌 영적인 동산이며 태고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이 최초의 교회를 「태고교회」 또는 「아담교회」라고 한다.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체라고 믿었는데 이 원칙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았다. 이것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명나무를 마음에 지니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인식들)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나무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비취 본다면 우리가 모든 경험 속의 진실한 본성을 영과 자연의 양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의 심정이 주님을 향해 태어나면서부터 열려 있어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훈육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배우며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네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강이며 이 강들이 흐르는 에덴은 곧 그러한 진리로 비옥하게 되는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옳다고 느끼는 마음속의 충동들 또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웨덴북은 태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적인 것들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고 했다. 이것은 초기의 인류가 우리 보다 미개하고 야만적 이었을 거라는 역사학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역사학자들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는 고대의 “황금시대”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화적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스웨덴북은 "금"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고대인의 지식에도 남아있어서 태고 시대를 그들은 “황금시대”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사랑을 통해 주님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만 지배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에는 각자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되었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스웨덴북은 이브의 창조를 상징하는 것을 '푸로프리움(Proprium)'이라는 라틴어로 설명한다. 라틴어로 '푸로프리움'은 인간 고유의 것(man's own 또는 one's own)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푸로프리움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진리를 망각 또는 부인하고 인간인 나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다 는 일반적인 견해를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는 이 푸로프리움은 유전적 특성처럼 조상에서 후손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고의 인류가 하느님께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푸로프리움을 지니고 태어난다, 현재의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인데 그이유가 우리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스스로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가 되었다. 갈비뼈가 육체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듯이 갈비뼈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갈비뼈로서 창조된 이브가 상징하는 푸로프리움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푸로프리움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시발점이었지만, 우리에게 푸로프리움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이며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른 사고와 올바른 선택을 거듭함에 따라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양과 형상에 가까워지게 된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브로 상징되는 푸로프리움 또한 에덴의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삶에 의미와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에

필요함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푸로프리움은 우리 영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또한 이것이 진정한 선을 유용한 삶을 통해 이루는데 필요한 것임도 알아야겠다. 결혼은 주님께 의해 만들어졌고 그것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가 자기만을 사랑함에서 벗어나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자기애로 빠지기 쉬운 인간적 본성을 경계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스웨덴북이 본 천국에서 “완전한 사람”은 여자나 남자가 아니라 결혼하여 한 사람처럼 보이는 한 쌍의 부부였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으로, 스웨덴북은 결혼을 신성한 관계라고 강조한다. 진정한 결혼이란 몸과 마음이 결합해 이생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결합하여 천국에서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 질문 정리

- 1)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 2)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3)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4)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주님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창조 하셨을까?
- 6)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 7)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되었을까?
- 8) 주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 9) 주님은 첫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
- 10) 첫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을까?
- 11) 아담은 무엇을 의미할까?
- 12)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 13) 물은 동산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14) 강은 몇 개의 물줄기로 나뉘었을까?
- 15) 무슨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지말라고 말해졌는가?

- 16) 아담은 무엇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 17)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그로부터 무엇을 빼내셨을까?
- 18) 주님께서 그 갈비뼈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19) 에덴의 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 20) 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창세기 3) 시작 4) 창조 5) 육 일 6) 사람 7) 하느님 9) 에덴의 동산 8) 휴식 10) 아담 11) 인류 12) 돌보고 가꾸는 일 13) 강 14) 네 개 15) 선악에 관 지식 16) 동물과 새들 17) 갈비뼈 18) 여자 19)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20)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 3

### 노아가 방주를 짓다

#### 머리말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자아와 스스로의 욕망에만 집착함으로써 순진함, 천적인 상태 그리고 선행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즉 악의 근원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본장을 통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6장

6장: 1.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3.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백 이십 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4.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5.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6. 왜 사람을 만들었든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7.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 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하고 탄식하셨다. 8.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9.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10. 노아는 썸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11.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13.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삼백 자, 나비는 오십 자, 높이는 삼십 자로 하고, 16.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 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20. 온갖 새와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22.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 교리 요점

\*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인간은 “천적” 본성 대신에 한 단계 낮은 “영적” 본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자연적인 애착들을 믿어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 상응 공부

홍수(나쁜 의미의 물) = 이기심으로 인해 거짓으로 변한 진리

3 = 의지, 사고, 행동이라는 세 측면의 완벽함 (의지+ 사고=행동)

40 = 시험의 상태

### 해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에덴의 동산 밖으로 쫓겨 난 후 더욱 더 나빠져 갔다. 우리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녀가 올바른 생활에서 이탈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모든 범죄자들도 처음에는 순진한 아기로부터 출발했음을 생각해 보라.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강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뜻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 결국 거짓만을 얻게 되고 이러한 거짓은 그들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홍수가 될 때까지 커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 과멸에 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된다. 홍수는 인류의 역사 중에 아주 악하고

참혹한 때를 상징하고 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상태를 잃었다 해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상징된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발달하게 된 인격이 바로 방주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방주로 인해 참혹한 난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숫자 40은 시험이 가득한 상태 또는 시험을 다 극복하는 정점을 뜻하는데 비가 40 주야로 내린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과 주님의 40일간의 시험을 상기하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주의 세부 사항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방주는 역청을 함유한 전나무(gopher wood)로 만들어졌다. 이 나무는 자연적 선함을, 역청은 이기심을 뜻한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진 것을 상징한다. 성경의 모든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듯이, 방주의 크기에 관한 숫자도 의미를 갖고 있다. 방주의 3층 구조는 우리 마음의 3층 구조를 의미 한다. 창문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옆에 낸 문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방주의 세부 사항 중 두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하나는 방주의 안과 밖이 역청으로 칠해 있었다는 것이다. 역청은 우리의 이기적 사랑을 상징한다. 역청의 상징성은 바벨탑 이야기에 등장하는 역청(slime)과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역청을 캐는 골짜기에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조차도 좋게 쓰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한 역청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기심이 아닌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주님께 의해 사용되는 이기심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지 않을 경우 기대되는 보상, 잘못된 행위에 대한 타인들의 비난, 또는 잘못에 대한 처벌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방주가 여러 칸의 “방”(rooms)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고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처럼 나뉘어 있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에 직접 말씀하셨

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느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악해지자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임할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선한 것들을 보존하시고 또 비록 인간의 모든 바람들이 악해지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보고 따를 수 있어서 진리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옳바르다고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강제해서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주 안에 있었던 새와 동물들은 선 또는 악에 속한 애착들을 의미하고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한다. 양식(food)은 이러한 애착들을 키우는 사상들을 의미한다. 방주 안의 모든 새와 동물들이 두 마리씩 쌍으로 존재했던 것은 생각(이해)이 의지와 결합한 상태의 애착 (affection)들을 상징한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깨끗한 짐승은 7쌍씩을, 부정함 짐승은 한 쌍씩만 취했음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악 보다 선이 더 강했음(많았음)을 뜻한다.

“아담”은 우리 교회에서 태고 교회로 부르며 신화에서는 이를 황금시대로 이른다. 그리고 "아담"으로 상징되는 태고 교인들은 감성적 또는 “친적” 타입(type)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노아”는 지성적 또는 “영적”타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그들의 사고(생각함)와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노아는 고대 교회 또는 은 시대(Silver Age)를 상징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첫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을까?
- 2) 첫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 3) 에덴의 동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4)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무엇일까?
- 5) 에덴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
- 6)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을까?
- 7) 주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을까?



- 8)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9) 첫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 했을까?
- 10) 주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 11) 그들은 회개했을까?
- 12)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 13) 주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 14)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 15) 우리는 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 16)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 17)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8) 노아는 방주로 무엇을 들어오게 했을까?
- 1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 20)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 질문의 답

- 1) 에덴의 동산 2) 지키고 잘 돌보았다 3) 강 4) 생명나무 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6) 지식의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는 것 (eat of tree of knowledge)
- 7) 갈비뼈 8) 여자 9)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10)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 11) 아니다 12) 인류를 멸하기로 13) 그들은 선했기 때문에 14) 방주 15) 전나무, 역청, 3층, 칸막이 방들, 창문, 문 16) 아내, 아들, 며느리 17) 썩, 함, 야벳 18) 창조물의 쌍들 19) 자아에게서 올바름을 찾음
- 20) 진리가 거짓이 되어 파괴적이 됨

## 4

# 아브람을 부르심

### 머리말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덕적 교훈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일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성서 본문: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11장: 27.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30. 사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 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8. 아브람은 그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겜 쪽으로 옮겨 갔다. 10.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 간 일이 있었다.

### 교리 요점

\*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 온 것이며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쓰인 것이 아니다. 사실적인 역사시대는 제 12장부터 시작된다.

### 상응 공부

갈대아의 우르 = 자연적 수준에서의 이기적 상태

가나안의 땅 = 천국적 상태

하란 = 자연적으로 선한 상태

### 해설

노아의 이야기는 고대 교회 즉 두 번째 교회가 생기고 또 쇠퇴해져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최후에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이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기록 중에서 역사 시대로 접어드는 부분을 살펴보자. 스웨덴북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실존 인물이 에벨(Eber: 창세기 11:14)이라고 한다. 이 사람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이 시작되며 히브리인 중 한 명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고대 교회를 잇는 세 번째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Israelitish Church)와 유대 교회 (Jewish Church)로 이루어진다. 그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교회는 모세가 계명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유대 교회는 바빌론 유수에서 귀환한 유다 왕국의 사람들 (people of Judah)이라는 의미에서 기원한 유대인(Jews)라고 불리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가 바로 유대 교회의 마지막이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교회를 스웨덴북은 표현(Representative Church, 表現) 교회, 또는 교회를 표현하기만 했음(Representative of a Church, 껍데기 뿐인 교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교회의 특성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담은 외적 형식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훈은 문자적 이야기 안에 내포된 깊은 뜻이지만 우리는 먼저 말씀의 문자적 이야기를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것은 마치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만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뜻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회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 또는 천적인 것들을 잃은 상태로 자연적인 것만이 남아있는 교회의 표현, 즉 겉으로만 교회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계명들과 예배에 대한 의식들은 상응을 통해 인류에게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게 해준다. (히브리서 8:5 참조)

주님은 하나의 교회가 타락의 끝에 이르게 되면 옛 교회의 사람들 중 선한 자들을 택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위해 부르신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옛 교회, 즉 고대 교회의 마지막인 히브리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중 선한 자들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아껴두신 것 즉 나머지 또는 그루터기(remnant)를 상징한다.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 주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소유하도록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을 글자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이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주님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브람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 후손이며, 이러한 영적 후손만이 주님과 약속을 이행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천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이다.

주님이 아브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들의 고향으로 상징되는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을 떠나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의 삶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여행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거룩한 땅에 도착하기 전 하란에서 죽었고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하란에 정착했다. 이처럼 이 여행은 아주 길어 도중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한 모든 사람의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다. 하란은 자연적 수준의 선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주님께 순종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하게 살고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문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의 순종에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속뜻)들은 배우려하지 않는다.

아브람과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가나안에 도착하고 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다. 네 방향 중 동쪽은 그들의 심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있음을 뜻하고 남쪽은 그들이 영적으로 총명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더 밝은 빛 쪽으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도착 하는 곳 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섭리를 인식하기 위해 애쓰며 우리 삶의 매 단계를 올라 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흉년을 만나게 된다. 흉년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상징한다. 흉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기적인 현상이다. (아모스서 8:11 참조) 간혹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의 영적 진보는 필요 없다는 착각을 한다. 말씀 전체를 통해 이집트는 자연적 지식의 창고를 의미하고, 여기서 지식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공부해 얻는 지식도 포함한다. 처음으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갔고, 그 후에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집트로

가셨다. 그것은 선과 진리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시기가 이집트에 체류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회의 시조인 아브람을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보면 선한 생활로 인도되기 위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아주 어린 영적 상태와 상응한다. 우리는 내 고향(출생 때 갖고 있던 매우 낮은 수준의 영적 상태)과 우리의 혈연(넓은 의미로 우리의 이기적인 애착과 생각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상속된 특별한 약함과 약들)을 떠나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여행해야 한다. (마태 19:29 참조)

### 질문 정리

- 1) 성경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인가?
- 2) 성경에 언급된 첫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 3) 지상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 4)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5) 아브람의 형제는 누구인가?
- 6)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8)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들이 첫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0) 누가 하란으로부터 떠나 계속 여행을 했는가? 롯은 누구인가?
- 11)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 13) 아브람이 두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4) 아브람은 멈춘 두 장소에서 무엇을 지었는가?
- 15) 그 후, 아브람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곳으로 갔는가?
- 16) 가나안 땅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람의 여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8) 에집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1) 아니다 2) 에벨 3) 아브람 4) 데라 5) 하란, 나홀 6) 사래 7) 갈대아의 우르 8) 가나안 9) 하란(나홀의 성) 10) 아브람과 롯, 아브람의 조카 11)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2) 세겔 13) 베델 근처 14) 제단 15) 에집트, 흉년 때문에 16) 생활 속에 있는 천국적인 방법 17) 유전된 이기적 경향성들을 떠나는 것(거절해가는 것) 18) 말씀 속에서 필요한 진리를 얻는 것

## 5

### 이사악의 출생

#### 머리말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사악의 대조를 위해 먼저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재검토와 상속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 성 서 본 문: 창세기 21장 1-21절

21장 1.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2. 사라는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는 낳아 준 아들을 이사악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4.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얻은 것은 백 살이 되던 해였다. 6. 사라는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7.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력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8.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는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12.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13.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덩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 놓고 16.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 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7.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18.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19.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21.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들였다.

### 교리 요약

\*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이성보다 더 높은 이성을 얻어야



한다.

### 상응 공부

헤브론 = 선에 관한 교회

광야 =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영적 상태

아브라함 = 단순하며 순진한 상태 (유아적 상태)

이스마엘 = 추론하는 능력의 자연적 상태

### 해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 것이 바로 사라가 이사악을 낳은 것이다. 이사악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다. 성경에서 아들의 출생은 진리의 새로운 발달 또는 새로운 지적능력을 의미한다. 이사악보다 14살 위인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은 이집트에서 온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 없이 눈에 보이는 외관에 따라 주위의 세계를 판단하고 관찰하는 우리의 첫 추론능력을 상징한다. 추론 능력이 발달할 시기에는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기도 한다. 우리는 때로 논쟁을 즐기며 연장자들 또는 현명한 사람들의 충고와 사상에 냉소할 때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하게 한다. 이것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기를 원한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옳은 것을 진정으로 원하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보게 되며 단순한 세상적 관심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사악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사라를 통해 출생된다. 그는 진정한 추론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제치고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재미있는 것, 육체적인 강함, 능력, 보기에 선한 것, 또는 착한 척하는 것 등이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가끔 운동선수, 댄서,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 혹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동경심은 우리가 삶의 내면적 깊이를 추구하기 시작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외면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실제로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더욱 유용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원할 때에 그녀의 아름다움이 일을 더 쉽게 이루게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모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불행을 초래 할뿐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스마엘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영적인 성장 즉 실질적인 성장을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은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석도 잘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 스스로와 그들의 교회를 위해 좋은 것을 행하는데 있다. 그들의 선행은 외적인 것(선) 즉 세상적인 견해에서의 선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안한 선(선행)이 본질적인 선함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스마엘은 이사악을 경멸하여 조롱했다. 이것은 하갈이 사라를 경멸했던 것과 같다. 자연 과학에 바탕을 둔 우리의 낮은 추론능력은 영적인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것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그래서 만약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인 논리성은 목이 타서 죽는 것과 같이 된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스웨덴북은 우리의 낮은 추론능력을 자연적 합리성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제 위치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적 합리성이 우리의 영적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올바른 인도자인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자연적 합리성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고 배우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젠 죽게 되었구나"하며 슬프게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셔서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이해된다. 이때로부터 이스마엘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번성하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이집트인 아내를 구해 준 것도 속뜻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자연적 지식에 사로잡힌 마음을 뜻하는 이스마엘의 이집트 출신 아내는 자연적 합리성과 상응되는 이스마엘의 진정한 배필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계속 살았다. 이것은 자연적 추론이 여러

가지 다른 자연적 분야에 관심을 두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함을 뜻한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archer)가 되었는데 활은 논쟁을 의미한다. 자연적 추론은 외적 현상에 관한 논쟁을 즐긴다.

우리는 이스마엘족이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자연적 추론도 그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게 되면 강건하여 쓸모가 있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물론 타인을 보호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영적인 문제들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진정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 한다. 이러한 삶은 은거하는 삶도 아니며 몽상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더욱 생각하며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삶을 즐기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지상의 두 번째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속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 3)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택하셨는가?
- 4)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멈춘 곳은 어디인가?
- 7) 누가 가나안으로 계속 갔는가?
- 8)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가나안의 두 장소는 어디인가?
- 9) 왜 그는 이집트로 갔는가?
- 10)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 온 후 어디에 정착했는가?
- 11)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2)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 13)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를 어떻게 잇게 했는가?

- 14) 하갈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16)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 17) 사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8)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라를 불쾌하게 했는가?
- 19)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 20)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21)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 22)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 23)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 24)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를 구했는가?
- 25) 이집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벨탑 2) 흘트려짐 3) 아브람(에벨, 데라) 4) 갈대아의 우르
- 5) 가나안으로 가라 6) 하란 7) 아브람, 사라, 롯 8) 세겔, 베텔 9) 기근
- 10) 헤브론 11)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나리라” 12) 아들 13) 하갈을 그의 아내로  
 줌 14) 이스마엘 15)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16) 백 세 17) 이사악 18)  
 이사악을 조롱했다 19)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 20) 사라의 말을 따라라 21) 사막(광야) 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 23) 활 쏘는 자 24) 이집트 25) 기억적인 지식

## 6

# 야곱과 에사오

### 머리말

본장에서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사악의 아내를 하란에서 취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25장: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악이 태어났는데, 20.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십 세였다. 리브가는 바탄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21.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악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25.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26.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악이 육십 세 되던 해였다. 27.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낯췌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28. 이사악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29.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 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30.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31.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32.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33.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34.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7장: 1. 이사악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2.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 5. 리브가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6.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7.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고 하시더구나. 8.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9.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만 끌어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10.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12.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 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14.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 준 다음, 17.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18.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 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사악이 “오냐, 네가 누구냐?”하고 묻자 19.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예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사악이 아들에게 물었다. “예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 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악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사오인지 먼저 보아야 겠다”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22.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 보고 이사악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예사오의 손이라!” 23.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예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기로 하였다.

24. 이사악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예사오냐?”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자 26.

이사악은 “예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26. 아버지 이사악은 야곱에게 “예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하였다.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 받은 들 향기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 나거라.

못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못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겨레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30.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이 빌어 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예사오가 사냥에서 돌아 왔다.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 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32. 아버지 이사악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예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33. 이사악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34. 예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 갈 복을 가로챘구나.” 36. 이 말을 듣고 예사오는, “나를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7. 이사악이 예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예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나 예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사악 앞에서 예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39. 아버지 이사악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밭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 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41. 예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예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 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42. 리브가는 큰아들 예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예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43.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 가거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45.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사악에게 호소하였다. “헛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헛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 맛이 있겠습니까?”

### 교리 요점

\*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까지 선용하시어 우리에게 영적 교훈



을 주신다.

- \*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방해야 할 본보기들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

## 상응 공부

에사오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선

야곱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진리

## 해설

창세기 25장의 문자적인 이야기를 통해 얻는 명확한 교훈은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파는” 표현에 함축된다. 그 이유는 에사오가 어리석은 매매행위를 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냉정히 돌이켜보면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더 중요한 내면적 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사오와 야곱의 출생은 유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성장과정 중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마지막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며, 그 때의 순진하며 신뢰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영혼을 회상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우리의 발달과정 중 합리성의 단계 즉 이사악의 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마침내 세상적 삶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으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 에사오와 야곱은 삶의 실용적 또는 외적인 것들(external)을 상징한다. 우리가 어떠한 실용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구체화시켜야 한다. 에사오와 야곱 형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에서 시작 부분을 상징하며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의지, 생각, 바램과 지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의지와 바램은 선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합리성을 상징하는 이사악이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선한 의지를 뜻하는 에사오와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지성을 뜻하는 야곱을 쌍둥이로 갖게 된 것으로 표현된

다. 이 쌍둥이 형제는 서로 비슷해 닮음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자주 다똥다. 의지는 생각이 있기 전에 생각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동기가 됨으로 먼저 생겨남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성이 먼저 생겨나야만 한다. 예사로도 표현되는 우리의 의지는 자연적 애착이나 충동들로 인해 쉽게 스스로의 미래를 현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포기한다.

시간이 흘러 이사악이 늙고 그의 눈은 아주 어두워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기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일상 업무에 휘말려 우리 스스로를 명백하게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appearances) 현혹되기 쉬우며 우리의 의지는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다. 예사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잡아 오는 사냥감은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염소 새끼 두 마리로 대신 하도록 허락되어 졌다. 염소 새끼는 자연적 수준에서의 선이지만 순수한 선을 의미한다. 이 발달 단계에서는 진리가 선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지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돕게 된다. 야곱은 예사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는 염소 가죽을 감아 예사오인 것처럼 행동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았으나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허용 하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기적 의지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설령 진리를 이미 배웠다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며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사악의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예사오의 손이라!”라는 표현으로 상징되어 있다.

야곱은 성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두 형제 중 집을 더 사랑했으나 그곳을 떠나야만 했고 긴 세월동안 타향에서 봉사한 후에야 그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유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가 갔던 하란은 단순한 순종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믿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더라도 진정으로 삶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을 행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굴곡들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선택하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삶, 즉 영원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발달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2)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었나?
- 3) 이사악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형은 누구인가?
- 5) 그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랐는가?
- 6)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 7)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 8) 이사악이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9) 리브가가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10) 리브가는 이사악이 늙자 야곱이 그를 어떻게 속이도록 도왔는가?
- 11)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12) 이에 대해 에사오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 13) 에사오와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리브가 2) 하란 3) 에사오와 야곱 4) 에사오
- 5) 에사오는 털이 많고 붉음, 야곱은 매끈매끈 했음 6) 장자의 권리
- 7) 팔죽 8) 에사오 9) 야곱
- 10)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 시키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씌워 주었다
- 11) 장자의 복 12) 야곱을 죽이길 원했다
- 13) 에사오는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의지, 야곱은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이해성

## 7

# 요셉과 그 형제들

### 머리말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즉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의 출생, 베델에서의 주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야곱의 간절함 등을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37장

37장: 1.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2.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열 일곱 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4.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내가 꾸 꿈 이야기를 들어 봐요”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7.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 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8.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9.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꾸는 꿈이 대체 무엇이나?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나?”

11.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14.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15.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16.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 달라고 했다.

17.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 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18.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9.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다 처넣고는 들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2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22.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처넣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3.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24.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처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예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27.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28.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 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30. 형제들에게로 돌아 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부르짖었다. 31.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32.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33.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34.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35.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36.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 교리 요점

\* 스웨덴북에 의하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거듭남이란 시험, 투쟁 그리고 승리라는 회전의 연속이다.

### 상응 공부

야곱의 열두 아들 = 인간 발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생각들과 애착 들  
 요셉 = 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들  
 베냐민 = 영적인 것을 배우고자 하는 애착들

### 해설

사람들은 말씀의 깊은 뜻을 공부해 갈 때 가상적으로 나타나는 끝없는 반복 즉 시험의 반복으로 일어나는 죄를 지음, 회개, 회복, 그리고 평화가 반복되는 것에

혼란해 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야곱은 에사오와 재회하고 나서 헤브론에 정착하여 평화를 찾았으나 그 후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시험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삶에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 내의 악을 인식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악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한 후 승리의 평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승리의 평화는 순간적인 것으로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안의 더 깊은 악을 발견하여 더 어려운 시험으로 가기위한 준비로서의 휴식이다. 우리는 가끔 현자들이 “나는 해가 갈수록 더 선해지기 보다는 더 악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아주 사실적이며 정확한 표현이다. 그 이유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맡겨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 더 깊은 악들이 발견 되어지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힘든 시험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모든 악을 단번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악과 싸워 이기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악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게 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한걸음씩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야곱은 여러 평면의 삶 중에서 자연적 평면을 뜻하며, 특별히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시기 즉 가정을 이루며 생업에 종사함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야곱이 이스라엘 (창세기 32:38 참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 정착하는 대목은 우리의 인생과정이 단순히 세상적이지만은 않고 신앙심도 갖게 됨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옳은 것을 시도하고 싶은 우리의 바람으로 우리들 내부에 많은 동기(motives)들을 가지게 된다. 이 동기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들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동기들이라도 언제나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 요셉과 베냐민으로 표현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우리의 가장 높고 가장 성숙된 자질이다. 이것은 창세기 제 37장 3절에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낮은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과는 아주 달라서 영적인 것을 파괴해 버리려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요셉은 꿈과 선견지명(vision)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영적 본성은 세상적인 가치

보다는 내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의 외적 자아는 감각들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인 요셉을 외적 자아만의 애착들을 상징하는 형들이 시기하고, 파괴하여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의 외적 자아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인생에 스쳐 가는 별볼일 없는 지식의 일부분 정도, 또는 그저 어린 시절의 경험 정도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리려 노력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거나 혹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가 참 좋았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었으니까. 사실 그때 배운 것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때 배운 많은 것들이 잊혀질 확률이 많지...” 이것이 은 이십 냥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모습이다. 진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서 진리는 기억적인 지식 안에 묻혀 버리는 것이다.

요셉이 실제로 죽지 않았음은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행운이 되었다. 훗날 온 땅에 큰 가뭄이 들 때 그의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크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요셉을 보호하셔서 그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셨다.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택했던 세상적인 원리가 희망 또는 생명을 잃게 되거나 실패 또는 큰 손실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이러한 세상적인 원리로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인식할 때를 대비해 우리 초기의 영적 상태들 속에 있었던 것 즉 “남겨 두신 것(remains)”을 우리들 속 깊은 곳에 보존되도록 섭리하신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서의 가장 깊은 뜻인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 질문 정리

- 1)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인가?
- 2) 아들 중 맏형은 누구인가?



- 3)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막내는 누구인가?
- 4) 가나안에 돌아온 후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5)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6) 야곱은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는가?
- 7)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 8) 요셉의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 9) 요셉이 꾸는 두 가지 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0)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 11) 요셉은 어디서 형들을 찾았는가?
- 12)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13) 누가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가?
- 14)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 15) 요셉은 어느 나라로 팔려 갔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열한 명 2) 르우벤 3) 요셉 4) 베냐민 5) 요셉과 베냐민
- 6) 요셉 7)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 8)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고 그의 꿈 때문이다
- 9) 곡식 단, 해, 달, 별들 10) 형들을 찾아보라고 11) 도다인 12) 죽이기로
- 13) 르우벤
- 14)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15) 이집트로 16) 기본이 되는 모든 정신적 자질
- 17) 영적 원리

## 8

# 모세의 출생

### 머리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안락하게 정착했고 또 요셉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 히브리족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인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에게서 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됐다.

### 성서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장: 1.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3. 이싸갈, 즈불룬, 베냐민, 4. 단, 납달리, 가드, 아셀. 5.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칠십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 가 있었다. 6.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7.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8.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9.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10.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11.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12.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13.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15.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아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6.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 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18. 에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들여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애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 나갔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22.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 두되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2장: 1.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아내가 아기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 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3. 그러다가 더 숨겨 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6. 열어 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7. 그 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 오너라”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샅을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 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 교리 요약

\*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 상응 공부

왕골(rush): 올바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생각

송진(pitch): 이기심

모세(Moses): 하느님의 법

### 해설

「창세기」가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해서 창세기 전체가 우리 삶의 시작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였을 때의 우리는 가장 높은 3층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된다. 따라서 그 때 우리의 삶은 천적인 기운(sphere)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의식, 생각, 혹은 추론하게 될 때는 천적 천사들이 물러가고 영적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친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 때는 자연적 천국에 거주하는 천사들과 연관을 맺게 된다. 그 이유는 성인들의 가장 관심 있는 느낌과 사고가 자연적 평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은 외향적 활동이나 효용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집트에 머무른 상태이다. 스웨덴붉은 요셉의 몸을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창세기 50:26) 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 의해 저장되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일컬어 "남겨 두신 것(remains)"이라고 이름 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를 에워싼 천국적 환경으로부터 얻은 모든 천적 혹은 영적 특질에 대한 지식과 심정 상태들을 뜻한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일러두었다. 인간이라면 세상적인 삶 만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기 안에 보다 높은 것들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여기서는 객일 뿐 천국이나 나의 본향”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뜻한다. 이집트에 머무른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그곳을 떠나는 최후까지 손님에 불과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한정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은 공수레공수거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성취감이나 또는 세상적인 쾌락에 깊이 빠져 살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이 결국은 삶의 본질을 놓치고 헛된 것들의 노예로 산 것임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대상을 찾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파라오의 억압과 폭정에 대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주님께서서는 우리 영혼의 속박을 깨고 우리를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할 진리(모세)를 우리 안에 준비해 주신다.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표현하지만 이 법도 처음에는 인간에게 제 몫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나일 강가 왕골상자 안에 들어 있는 모세로 상징되는 순수한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안에 주님께서 저장하신 옳고 적절한 것에 관한 단순한 진리들을 재조명을 하게 된다. 이 재조명을 이루는 계기는 대개 어떤 어려움에 의해 삶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졌음을 느낄 때 이다. 나의 삶이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욕망이나 다른 것에 의해 어렵게 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가 자아성찰을 시작하여 삶을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여기서 「파라오」의 딸은 이 새로운 경각심을 가진 삶을 검사해 보고 싶은 욕구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에 의해 이 새로운 삶은 더 깊고 더 순수한 애착(모세의 친어머니)에 의하여 양육되어 진다.

모세는 한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40년의 여정이라는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 즉 히브리 친어머니로부터 양육과 이집트인들로부터 학문적인 교육과 지도자로서의 훈육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세상적이고 이기적 삶이 노예적인 삶을 깨닫고 영적 삶과 자유를 갈망하게 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사고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아 새로운 사고를

놓고 이 새로운 사고가 키워 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주님에 의해 공급되고 보호되는데, 이것은 이 새로운 사고(thought)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실지로 쓰일 때까지 계속된다.

영적 특질의 발달은 세 가지 명확한 단계를 거친다. 스웨덴북은 이것을 회개, 재구성,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회개(repentance)란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었음과 이 상태를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이 결합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재구성(reformation)이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고쳐가는 가운데 우리 속의 악이 선으로 재구성 되는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새 의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남의 단계는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없으며, 그것의 준비 단계인 회개와 재구성을 오랜 세월 동안 거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회개와 재구성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며 거듭남은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 인해 통곡했고,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노력을 완료하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할 때까지 그 통곡이 계속 이어진 것을 통해 이해된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고 고된 여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진정한 고향 즉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

### 질문 정리

- 1)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의 대접은 어떠했는가?
- 2) 해가 거듭될수록 그 대접은 어떻게 변했는가?
- 3)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 4)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어떻게 막으려 했는가?
- 5) 구원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7) 누가 아기를 발견했는가?
- 8) 그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9) 모세를 젖 먹이기 위해 누가 불리어졌는가?
- 10)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1) 이집트에서의 속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존경하는 손님' 2) 노예가 되는 쪽으로 변화 3) 히브리족이 강해짐을 두려워했음 4)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5) 모세 6)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속에 놓아 둬" 7) 파라오의 딸 8) 그를 양자로 삼는 것 9) 모세의 친 어머니 10)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1) 세상적 지식, 사업, 쾌락 등의 노예가 됨

## 9

# 홍해를 건너다

### 머리말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과일절에 관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일절(Passover)이란 단어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되어 머리 속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3장: 17.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불러 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 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18.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19. 이 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20.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21.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므딕들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룻으로 돌아 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 먹지 않고 풀어 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6.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매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7. 특수 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8.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9.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히룻 근처 바알스 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았다.

10. 파라오가 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11.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문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12.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3.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14.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1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16.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19.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20.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21.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3. 이집트인들이 뒤쫓아 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24.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25.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하고 소리쳤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27.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속에 처넣으셨다. 28.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30. 그 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 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 \* 선은 사랑되어야 하는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게 해서 안된다.

### 상응 공부

빵 = 선함

누룩 = 거짓

불 =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리

구름 = 지상에 형체를 가지고 있는 진리 또는 말씀을 담은 글자

### 해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는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시작하는 때에 끝나는데, 이것은 노예 상태라는 하나의 고난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고 마침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후에야 「파라오」가 항복하는 것을 기억해 보자. 장자는 믿음을 상징한다. 만약 누군가가 「파라오」처럼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만 고집 부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클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잃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존재들을 믿지 못한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금, 은으로 만들어진 값진 장신구들을 이집트인들로부터 취한다. 이것은 최후의 순간이 오면 각 개인의 영적 생활에 속한

것들은 비록 이것들이 악한 것과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 선에 속하는 것들이 악에 속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12:35-36).

이스라엘인은 모든 재앙을 이집트인들처럼 겪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삶에 무서운 재난이 있음을 보고 이집트를 빠져 나오기 위해 모세를 따르려 했다. 그들이 마지막 큰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일련의 표시가 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과월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좌우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축제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양은 순수하고 순진한 애착들을 상징하며 양의 피는 그 순수한 애착에서 나오는 진실한 생각들을 뜻한다. 집의 문설주나 문상인방은 마음의 입구를 뜻한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행동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한 생각이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수호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양은 물에 삶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도록 했는데, 이것은 선은 꼭 사랑 되어야하며 생각 안에서만 맴돌지 않아야 됨을 표현한다. 누룩 없는 빵은 낡은 거짓 사상과 선이 혼합 되서는 안 됨이 원칙이라는 것을 묘사한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누룩(leaven, yeast)을 얻는 방법이 앞서 부풀린 빵의 일부를 떼어 저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쓴 나물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이르는 동안 반드시 맞게 되는 시련들을 묘사한다. 과월절 기념 음식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즉 여행 준비를 완료하고 먹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채택되어 지는 새로운 원리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생활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속하는 것들도 병행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를 빠져 나올 때 이집트인들의 금, 은, 그리고 의복들을 취한 것으로 묘사된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인도하신 광경은 아주 아름다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구름은 말씀을 담은 글자(letter)를 뜻한다. 주님은 이 글자 안에 그분의 진리를 베일로 덮듯 담고 계시면서 우리의 미약한 영적 시야에 맞춰 진리의 강도를 조절하여 주신다. 우리의 신체적 눈이 태양을 똑바로 응시 못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을 직시할 수 없다. 낮은 우리의

심정 상태가 아주 깨끗이 되는 순간에 해당되며, 이때에 주님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 밤 즉 우리의 심정 상태가 탁하고 어두울 때에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어둠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 우리는 가끔 왜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겪게 되는지 의아해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믿고 시련에는 주님의 좋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나 친절함 등이 스스로에게서 파괴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중에 밤이 점점 지나가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고 높게 발전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주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기둥은 「버팀」을 뜻한다.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광경은 각 사람이 자아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꿀 때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큰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유혹은 영적 여정의 초기 단계에 오게 된다. 부흥집회 등등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계기로 심령이 변화되었다고 믿던 사람들은 이 초기 단계의 유혹, 즉 세상적 욕망이 자신의 중심에 다가서게 되면 바로 이집트로의 속박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이 바다는 그냥 건너가기에 너무 깊게 보이며 우리의 의지만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다를 건너가기 원한다면, 주님의 능력 즉 모세의 오른팔은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신앙인의 삶에는 늘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이집트를 떠남으로 한 번의 큰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다시 세상적인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로는 돌아가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

### 질문 정리

- 1)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 2)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저녁에 했던 큰 축제는 무엇인가?

- 3)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4)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 5) 히브리인들이 떠난 후 파라오는 무엇을 했는가?
- 6)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따라 잡았는가?
- 7)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밤새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8) 아침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9) 히브리인들을 바다 안까지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 10)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11) 홍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재앙들을 내림 2) 과월절 3) 금, 은 그리고 의복 등을 주었음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 5) 히브리인들을 뒤쫓았다 6) 홍해 근처에서 7) 양 진영 사이에 기둥을 두심
- 8)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건넜음 9) 물에 빠져 죽음
- 10) 세상에 속한 것만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여 영적 생활을 추구함을 묘사한다.
- 11) 악에서 나오는 거짓이 축적된 상태

# 10

## 십계명

### 머리말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광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곤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3개월째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음도 기억하자.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두자. 본장은 19장에서 언급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9장: 16.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 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18.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 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야훼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 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 두어라. 22. 야훼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23.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4.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 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 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25.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 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20장: 1.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5.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10.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11.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18.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19.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들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21.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떡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 교리 요약

\*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이며 사람이 지어낸 법이 아니다.

### 상응 공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머니: 교회

### 해설

십계명은 신앙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며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몇 번이나 계명에 대해 언급하셨다. 예를 들자면, “만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켜라”고 하셨다. 스스로가 신앙인이요 또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일원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있는 계명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십계명의 내용과 그것이 말씀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정도는 늘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할 것이다. 계명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삶으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신앙으로서 범하기 쉬운 잘못 중의 하나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좋은 사람”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다.

계명들은 글자에서도 특별한 것을 요구하며,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그것들을 따라야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삶의 최고 목표를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으로 삼거나 혹은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순종심과 경외심이 없다면, 이것이 곧 살인, 간음, 훔침, 거짓 증거, 그리고 탐내는 것으로 이웃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다섯 계명들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주님 스스로 함축하셔서 “첫째 가고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38)”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중 다섯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외형상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관일 뿐이다. 따라서 처음에 오는 다섯 계명들 안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결과는 실재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모든 계명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고려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자기 반성과 자기 훈련이 저절로 뒤 따른다. 그 이유는 계명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외향적 질서 생활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있게 되는 우리의 동기(motives)와 그것의 근원이 되는 원리(가치관)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찬양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함은 우리의 사고나 뜻함의 기준을 하느님에 속한 것에 두어야 하며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감정에 속한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느님의 속성들(qualities),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을 내향적으로 경외하며 사랑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단지 인간이 쓴 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함은 주일은 주간 중 가장 중요한 날로서 우리의 영적 양식과 성장을 추구하는 날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5.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인식의 세계를 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며 영적 어머니인 교회를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의 뿌리인 미움, 복수,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의 심정을 뿌리 뽑아야 함이며 이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

7.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의 사고, 언어, 그리고 지침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깊은 뜻으로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사상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8. “훔치지 말라”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해로운 잡담을 금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웃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것, 깊은 의미로는 선과 지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예를 획득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훔치는 결과이다.

9.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스스로도 정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이 가진 선(the good)을 인정하고 옹호해 주어야 하며, 이웃이 가진 악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더 큰 규모는 우리가 소속된 사회, 나라, 그리고 교회로 더 큰 이웃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

10. “탐내지 말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도록 주신 재능과 기회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또는 직업 등이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역을 통해 가나안으로 여행해야만 했는가?
- 2)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엇을 그리워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 4) 석 달 쯤에 그들은 어느 산에 도착했는가?
- 5) 주님으로부터 계명이 내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 되었는가?
- 6) 셋째 날 아침 그들을 무섭게 만든 광경은 무엇인가?
- 7)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 8) 맨 처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10) 계명은 어떻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가?

- 11) 첫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2) 둘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3) 이러한 계명은 본문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가?
- 14) 주님은 왜 시나이산으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5) 광야의 여행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질문의 답

- 1) 광야 혹은 사막 2) 양식(고기), 물 3) 만나,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 4) 시나이산 5) 아니다 6) 천둥과 번개 7) 하느님의 음성 8)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 9) 십계명 10) 첫째 돌판은 1-5계명; 둘째 돌판은 6-10계명 11) 하느님에 대한 의무 12) 이웃에 대한 의무 13) 예 14) 이 계명들이 하느님의 법임을 보여 주시려고
- 15) 재형성 - 영적 삶을 위한 준비시기

## 11

### 나답과 아비후

#### 머리말

본과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 밑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특히 주님께서 예배 의식에 관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본과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두개의 계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분향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성서본문: 레위기 10장

10장: 1.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2.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3.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놓고 “어서 가서 너의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고 일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요.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겨레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요. 7. 그대들은 만남의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8.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 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10.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1.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2.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요. 13.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요,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14. 또 흔들어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 갈 몫이요.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요.” 16.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가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17.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 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다. 18.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 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느냐?” 20.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 교리 요점

\* 이기적 동기에 근거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킨다.

### 상응 공부

불 = 사랑 또는 미워함  
 큰 제단위의 불 = 주님을 사랑함  
 이상한 불 = 자아를 사랑함

### 해설

레위기서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주 드물다. 대부분의 내용이 고대 히브리인에 대한 지침 특히 그들의 예배, 제물, 헌납문제 그리고 기념축제 등에 관한 규정들이어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중요하지 않은 말씀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책의 이름은 레위 지파로부터 붙여진 것이며,

내용은 성막에서의 예배와 직무를 위해 타지파와 분리된 레위지파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모세의 형 아론은 주님께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 직무를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도 보조 제사장들로 임명되었다. 후에 엘르아잘은 아론의 후계자가 되었다. (민수기 20:22-29)

고대 히브리 교회는 단지 표현적인 교회 (representative church)였다. 히브리인들은 진정한 내적 예배에 관한 지식을 모두 잊은 상태에서 외적 예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주님께 의해 선택되었다. 즉 그들은 주님이 내적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시기가 될 때까지 상응(correspondence)으로 인간과 주님 사이를 연결시켜 외적 형태를 보존하며, 처벌에 대한 공포와 순종에 따른 보상으로 이끌어 지기에 아주 적합한 민족이었다고 스웨덴북은 설명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원칙성은 구약성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별로 중요치 않은 규정을 어겼을 때도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히 심판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벌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처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임 또한 주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표현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표현적인 교회는 가시적인 형태로 그 안에 담긴 천국과 영적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상응으로 담고 있으므로 조그만 규정을 어기는 것 또한 상응으로 본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표현적인 교회의 또 다른 특성은 이 교회에 속한 이들은 모든 것을 흑,백의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아주 깊은 교훈 몇 가지를 레위인들에 대한 법에서 찾아보자. 레위기 16장 12-13절을 보면, 향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에 의해 바쳐질 때 그들의 향로들은 성막 뜰에 설비된 큰 번제단의 타고 있는 숯불로 채워지도록 했었다. 큰 제단이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쓰여야 함을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 큰 제단의 불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 향로에 담은 숯불 위에 뿌려져 바쳐지는 향은 우리의 기도,

예배, 혹은 감사드림을 표현한다. 계시록 5장 8절,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장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를 통해 우리는 향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향을 바치는 것에 관한 이 법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함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의 가치 없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음을 뜻한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은 “부정한” 혹은 기록하지 않은 불이란 예배 안에 있는 이기적 동기들을 뜻한다. 만일 우리가 존경받고 싶음, 사업의 발전,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게 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정한 불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한 불에 대한 벌을 설사 죽어 저 세계로 갈 때까지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이며 철저하다. 이러한 원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 제단 위의 불이 두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였으나 그것이 이기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졌듯이 그들의 영적 생명은 소멸하고,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 내어지는 것처럼 천국 밖으로 내쳐지게 된다.

마태복음 8장 10-12절과 마태복음 23장 23-33절을 참조하여 본문과 대조해 보자. 주님께서 아주 강경하게 꾸짖으신 죄는 위선이다. 나답과 아비후의 변사는 위선적 예배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허용되었지만,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도록 명령되었다. 인간적 측면에서는 악한 것을 행한 자가 대가를 치르는 모습도 애처롭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높은 이해성이 공의를 인식하면, 우리는 악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하느님의 법은 창조된 모든 세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이다. 만약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된다면, 삼라만상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대한 어떤 희망과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잃게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성막이란 무엇인가?
- 2)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3) 아론의 보조자들은 누구였는가?
- 4)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제단은 무엇인가?
- 5) 성막의 어느 곳에 큰 제단이 있었는가?
- 6) 큰 제단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 7) 성막의 어느 곳에 분향단이 있었는가?
- 8) 하루에 몇 번씩 분향하였는가?
- 9) 향을 피우기 위한 숯불을 운반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 10) 숯불은 어디서 취했는가?
- 11) 아론의 보조자 중 첫째, 둘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13) 불이 “이상하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변이 발생했는가?
- 15) 죽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 17)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 18) 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큰 제단 위의 불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운반용 교회 2) 아론 3) 그의 네 아들들 4) 큰 제단(번 제단, great bronze); 분향단 (incense)
- 5) 성막 뜰 (Outer Court) 6) 제물을 바칠 때 (Sacrifices) 7) 성소 (Holy Place)
- 8) 아침과 저녁에 한번씩 9) 향로 (a censer) 10) 큰 제단 11) 나답과 아비후



12) “이상한” 불 또는 기록치 않은 불을 드렸음 13) 타당치 않음 14) 불이 그들을 죽임 15) 진영 밖으로 끌어내졌음 16) 슬퍼하지 말라 17) 불에 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18) 기도 19)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 12

### 발람

#### 머리말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별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발람과 동방박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고대 말씀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 등을 알아본다.

#### 성 서 본 문: 민수기 22, 23, 24장

22장: 1.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2. 시뵘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4.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때 모압 왕은 시뵘의 아들 발락이었다. 5. 그는 큰 강 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브돌로 사절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6.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8.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9.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은 “시뵈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11.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14.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람에게 돌아 와서 발람이 따라 와 주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5. 발람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뵈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시오. 17.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19.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2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22.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23.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4.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25.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26.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27.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하고 말하자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 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31. 그 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훼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든 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32. 야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 선 것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훼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서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35. 야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37.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38.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39.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셋 마을에 이르렀다.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 온 고관들에게도 보내 주었다.

41.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잡아 오시오.” 2.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3.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그대로 알려 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4.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 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들을 넣어 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락에게로 돌아 가 이리이러하게 일러라.” 6.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7.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 왔겠다. 모압 임금의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 달라고 하였지만 8.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9.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10.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11.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오?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해 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 주다니!” 12. 발람이 발락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 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13.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14.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16.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들을 담아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리이러하게 말하여라”하고 일러 주셨다. 17.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락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18.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시뵘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19.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번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20.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오?

21. 야곱에게 재앙일랑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게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뿔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는군요. 23.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24.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25.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고 갑시다. 행여 그 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28.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일곱 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30.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1.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3.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4.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6.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8.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지켜 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 구나.

9.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 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0. 발락은 율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너를 불러 왔는데, 너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1. 당장 너 살던 데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 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 드리리다.” 15.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16.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17.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 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18.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19.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21. 또 그는 켈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22.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23.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 남으랴! 24. 함대가 기뻐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25.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 교리 요점

- \* 고대 교회의 말기에 상응에 관한 지식이 악용되었는데 그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마술의 시작이다.
- \* 우리가 주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기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 상응 공부

- \* 일곱 = 거룩한 것들
- \* 나귀 = 자연적 추론

### 해설

스웨덴북은 “발람은 위선자요 마법사였다. 그 이유는 그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좋게 말했으면서도 그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었다. 그는 발락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통해 그의 일이 위선적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발람에 대해 말한다. (계시록 풀이 n. 114)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계시록 2장 14절)라는 구절을 통해 발람이 발락을 돕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발람에 관한 이야기의 첫 부분은 점쟁이로서 그의 인격 측면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해야 함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강렬한 방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기적 욕망으로 휩쓸릴 때 나귀라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 또는 우리가 인정하는 상식들을 이용해서서 우리를 멈추고 다시 한 번 고심해 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는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악한 노력에 의해서 다칠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영 즉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각 지파가 에워싸면서 적당히 위치한 이 배치도는 천국의 질서 또는 각 개인의 천국적 인격을 묘사하고 있다. 천국적 인격은 자기의 가장 깊은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고 그 외의 모든 애착이나 능력들은 가장 깊은 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어 각각의 위치를 확보하여 움직이는 상태이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동기와 질서 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쉽게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좋은 운과 기회를 가져서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시험을 겪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외적환경이나 생활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함을 발견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마태복음 25:21)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다른 하나는, 입으로만 선을 행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선함을 오히려 해치는 위선적인 생활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인 사업가가 예배와 교회에 대한 헌금에는 정성을 다하지만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적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위선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한 것이다”(16:10)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발람에게 적용



하면, 그가 주님께서 명하신 말을 할 때에는 축복된 말씀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의 의지로 말을 할 때는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악이 나타남으로 발람의 위선을 증거한다.

이와 같은 교훈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발람이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줄 수 없었으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법도에 따르지 않고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단지 표현적 상태였을 뿐 이스라엘 민족 개인의 영적 상태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진정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스웨덴붉은 “발람이 간교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특질이 심령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계시록 설명 n. 140-5)

발람이 이스라엘족과 미디안족과의 전투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살해됨도 의미 있는 것이다. (민수기 31:8). 미디안족은 좋은 의미로 이드로(미디안 제사장)가 모세를 보호하고 충고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선으로부터 진리를 가진 자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들은 나쁜 면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을 때) “진리를 가지고는 있으면서 그에 따른 삶이 없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 질문 정리

- 1)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후손들은 몇 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 3)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 지는 어디인가?
- 4)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했던 왕은 누군가?
- 5) 발락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6)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7) 발람은 그의 힘을 누구에게서 구했는가?
- 8) 주님은 발람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길을 가는 도중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1)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 12) 발람은 이러한 제단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13)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 했는가?
- 14) 그때 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5) 발람은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 없었는가?
- 16) 발람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 17)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었는가?
- 18) 발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 19) 나귀는 무엇을 표현 하는가?

#### 질문의 답

- 1) 구름기둥과 불기둥 2) 40년간 3) 모압 평야 4) 발락(모압왕) 5) 발람
- 6)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7) 하느님으로부터 8)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9) 내가 주는 말만 말하라고
- 10) 천사가 그의 나귀를 놀라게 했다 11) 일곱 제단과 제물로서 증송아지와 수양들
- 12)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13) 세 번 14) 저주가 축복으로 바뀜 15) 악한 의도 속에는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 16) 별에 관한 예언 17)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8)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와중에 살해 됨 19) 자연적인 이성이나 상식으로 추론함

## 13

### 예리고 성의 정복

#### 머리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광경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것, 과월절 축제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된 것 등도 염두 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두면 본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 성서 본문: 여호수아 6장

6장: 1.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이야, 3.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4. 사제 일곱이 각기 수양뿔 나팔을 들고 켈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일곱 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5. 그 수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 전군은 일제히 쳐들어 가거라.” 6.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일곱 사제는 수양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의 켈 앞에 나서시오.” 7.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부대는 야훼의 켈 앞에 나서라.” 8.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일곱 사제가 수양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9.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켈 뒤를 후위부대가 따라 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 때 고함을 질러라.” 11. 그는 야훼의 켈을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야훼의 켈을 메고 나섰다. 13. 일곱 수양뿔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가 야훼의 켈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부대는 야훼의 켈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4.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

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15. 이렛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 날만 성을 일곱 바퀴 돌 것이다. 16. 일곱 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 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 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18.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19.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20.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가 성을 점령하였다. 21.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견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 오너라.” 23.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 내 왔다. 24.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 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야훼의 금고에 넣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만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27.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 교리 요점

- \*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에게만 있으며 심정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거듭나는 삶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 \* 시험에 부딪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 \*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신실한 자세로 행해야 한다.

### 상응 공부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truth fighting)

성 = 체계적 교리 (a system of doctrine)

예리고 =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해성  
나쁜 면에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부정

종려나무 = 악을 극복하는 승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원칙

### 해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이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예리고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스파이들은 창녀 라합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어서 예리고가 함락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이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예리고에서 발견된 금, 은, 놋 그리고 철 등의 제품이 주님을 섬기는데 헌납되도록 명령된 것이다.

우리가 영적 삶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주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거짓 사상이다. 거짓 사상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총명으로는 극복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힘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은 예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묘사된다. 우리가 설사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거짓된 사상을 정복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 온 것이다. 스파이에 관한 내용과 예리고성에 있는 금속들의 처리에 대한 명령은 이러한 준비에 대한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 속에서도 선을 향한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안내자로 삼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했다고 생각될 때도 선을 향한 가능성은 지켜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선한 판단과 행동에는 자기만을 걱정하는 타입과 자기를 조절해 가는 타입이 있다. 스웨덴북은 자기를 조절해 가는 타입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목적을 위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달시키려 하며 현명한 순종을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더욱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모세가 거룩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듯이, 스파이들이 예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러한 정탐 과정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행동들이 실제화되기 전에 가능성을 탐색하며 성사여부를 따져보려는 우리의 생각들을 묘사한다. 창녀 라합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게 보이는 것도 내면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라합은 구원되었고 이스라엘족과 함께 살도록 조처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다윗의 선조로 기록된 라합(Rachab, Rahab)이 바로 이 여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외향적 면으로도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심정 또한 주님께서 꿰뚫어 보심을 알아야 한다.

정복을 위한 또 다른 준비 사항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상기하기 위해 길갈에 돌을 세운 것과 5장에 기술된 몇 가지 사건들이다. 5장에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순수함과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며 기독교인들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과월절이 기념되어 졌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억압된 상태로 있던 것을 주님이 구해 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들이 다음 날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해 만나가 중지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중지되고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협력한 결과로 생산되는 새로운 영적 자양분을 상징 한다. 위의 모든 사건들은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새로운 자발적 의지를 고무시키고 강건케 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예리고성의 정복으로 마무리 된다.

사실 예리고의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케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며 수양의 뿔로 부는 나팔소리는 이타적 사랑의 힘을 외치시는 주님의 소리를 뜻한다. 그리고 숫자 일곱은 우리의 의지가 기꺼이 주님을 섬김 즉 거룩한 상태에 도달될 때까지 주님께 끊임없이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후에 사람들은 “와”하고 큰 고함을 지르고 그에 따라 예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심에 의해 주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연적 자만심과 자아애로 우리들 내부에 지어졌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갈”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시편 제 5편 8절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되새겨 보자.

### 질문 정리

- 1) 어떤 강이 이스라엘백성을 거룩한 땅으로부터 분리시켰는가?
- 2)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가?
- 3) 거룩한 땅에서의 그들의 첫 진영은 어디인가?
- 4) 그곳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 5)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 6)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성 주위를 돌 때 무엇을 메고 돌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 8) 케 앞에 선 사제들은 몇 명이었는가?
- 9) 사제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0) 육일 동안 하루에 몇 번 성을 돌았는가?
- 11) 칠일 째 되는 날 성을 몇 번 돌았는가?
- 12)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그 성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 14) 그 밖의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 15) 여호수아에 의하여 말해진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예리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요르단강 2) 기적에 의하여 3) 길갈 4) 과월절 5) 만나가 중지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
- 6) 예리고 7) 케 8) 일곱 명 9) 수양 뿔 나팔 10) 하루에 한번 11) 일곱  
번
- 12) 성벽이 무너짐 13) 라합과 그녀의 가족 및 금속들 14) 파괴해 버렸음
- 15)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16) 거듭나는 생활의 시작
- 17) 자연적인 자만

## 14

### 드보라와 바락

#### 머리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취를 살펴보고 판관기 시대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장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할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4장

4장: 1.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3.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



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삌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테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블룬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다불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7.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네 손에 붙이리라.’” 8.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다면 못 가겠습니다.” 9.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 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테스로 갔다. 10. 바락이 즈블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테스로 출동시켰다. 만 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 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테스 근처 사야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13. 구백 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이 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만 명 부대를 이끌고 다불산에서 쳐 내려갔다. 15.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하고임까지 따라 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17.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하벨 가문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8. 야엘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20.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 주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22.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 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 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23.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24.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놀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통해 구원하신다.
- \*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시련에 빠지게 된다.

### 상응 공부

베델 =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라마 =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텐트 = 예배 속의 어린 시절 같은 상태

야엘 = 이스라엘을 돕는 자, 즉 천적인 천국을 돕는 자, help for Israel, help for the Celestial

### 해설

거룩한 땅의 정복과 정착은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즉 부모의 지시를 따르는 시기가 끝남과 비슷하다. 판관기 1장에서는 양친의 품을 떠나 한 인격체가 형성된 상태를 열 두 지파와 그 지파가 자리 잡고 정착한 모습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우리의 의도 또는 의지 부분은 남쪽 부분에 해당되며, 이것은 시므온과 유다 지파로 묘사된다. 이 두 지파는 갈렙의 지휘 아래 거인족 아나김의 세 아들을 포함하는 모든 적을 소탕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의도(심정)가 선함을 뜻한다.

북쪽 부분은 우리의 이해성을 묘사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은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했다. 이 지파도 적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낼 만큼 충분히 우세했다. 하지만 그들은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았고 적들 사이에 정착해 살며 그들의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회의 통상적인 생각 속에 있게 되는 수많은 오류를 꿰뚫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자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종종 세상적 추론과 타협하며 이로 인해 셋길로 빠지게 됨을 보여준다.

판관기 2장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 주신 큰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독립적 삶이 시작되어서도 아직은 과거 부모 밑에서의 가르침이나 훈육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상태가 퇴보하여 가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즉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와 같은 상태로 우리 역시 빠져 버린다.

17장 6절의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는 구절은 판관 시대의 상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해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사는 상황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자아 중심적인 사상이 거듭남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타민족들의 빈번한 침략으로 고생을 했듯이 이러한 사람들 또한 반복적인 쓴 경험들을 겪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정복이 승리로 끝났다고 여기며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고, 살아남은 적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자 그들을

공격했다.

판관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세운 인물들이다. 우리가 시험과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울 특별한 진리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끌어 내신다. 판관기의 각 적들과 판관은 우리의 특성을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북쪽 부분에 있던 적은 우리속의 거짓 추론에 해당된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두 여인들에 의해 구원되었다. 첫 번째 여인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의 종려나무 아래 있던 예언자이다. 야곱의 막내아들 베냐민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질을 뜻한다. 종려나무는 선함 그 자체는 주님에게만 있으므로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규율해야 한다는 원리를 뜻하며, 여인은 애착을 표현한다. 따라서 거짓 추론이라는 시험에 대처하여 일으켜지는 우리의 판관은 우리의 사고가 주님을 지도자로 찾는 애착을 의미한다.

드보라는 전투를 위해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두 지파를 선정했다. 이것은 거짓 추론에 대항하는 전투는 심정 쪽에서 보다는 지성 쪽에 전투임무가 맡겨져야 함을 암시한다. 우리가 주님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심을 확신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적은 홍수 속에 사로 잡혔고 적의 말과 철병거는 그 홍수에 휩쓸려 졌다. 이는 5장 21절의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전투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적의 장군 시스라는 도망갔다. 시스라는 거짓 추론을 지휘 감독하며 그 뒤를 밀어주는 거짓 원리를 뜻한다. 이것은 즉 우리가 어떤 논쟁에 휘말려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논리를 뒤엎거나 논리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면 승리한 것으로 오판하는 것과 같다.

야엘은 켄 사람 헤벨의 아내이며, 광야에서 모세를 도운 모세 장인의 후손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Reuel 또는 Raguel)는 어린 시절 받은 훈육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남아있는 단순한 선들을 뜻한다. 미디안은 사라가 죽은 후 아브람이 다시 장가들어 게투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대부분의 미디안족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였지만, 켄족만은 이스라엘과 우호관계가 있었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룩한 땅에 왔다. (민수기 10:29-32, 판관기 1:16, 4:11참조) 텐트는 단순한 믿음에서 오는 예배를 상징한다. 텐트 말뚝(nailor wooden tent pin)은 땅에다 텐트를 팽팽하게

뭉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결되도록 하는 단순한 명령들에 해당된다. 야엘의 잔인한 행동은 어린 시절에 기억한 “너희는 .....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용하여 거짓 추론을 그 뿌리까지 뽑아내 버리는 것을 뜻하며, 적에 대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천막말뚝을 박았을 때 그 여자는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즉 “너희는 .....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어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단단히 박혀져있어야만 함을 암시하고 있다.

드보라와 야엘 없이는 바락과 북쪽의 두 지파의 군대가 승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인간적인 총명만으로는 세상적인 추론이 가하는 습격에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한다. 여호와께 예배함을 잊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솔을 다스리는 왕의 손아귀에 잡히게된다. 그리고 주님께 고통을 호소하자 주님께서는 판관 드보라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과정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하다. 이 과정은 자만 -> 노예화 -> 주님을 기억함 -> 건져내심이라는 순서로 연결된다. 시편 10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신 것이 그 한 예이다.

###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평생동안 무엇을 성취했는가?
- 2) 거룩한 땅은 어떻게 지파 별로 분할 되었는가?
- 3) 여호수아를 바로 계승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 4)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5) 그 결과는 무엇인가?
- 6)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 가?
- 7)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8) 여판관은 누구인가?
- 9) 여판관 당시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 10) 그 적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 11)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어떤 조건하에 그는 군대를 이끌었는가?
- 13)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았는가?
- 14)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 15) 누가 승리했는가?
- 16) 시스라는 어디로 피신하여 누구에게 숨겨 달라고 했는가?
- 17) 그 여자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는가?
- 18) 판관 시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묘사하는가?
- 19) 북쪽에 있는 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20) 천막 말뚝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2) 제비 뽑아서 나누어짐 3) 없다 4) 주님을 잊어버림  
 5) 많은 적들이 그들을 괴롭힘 6)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 7) 판관 8) 드보라  
 9) 야빈 10) 시스라 11) 바락 12) 만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13) 납달리, 스블론  
 14) 키손강 근처 15) 이스라엘 16) 야엘 17) 그를 죽였음 18)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 19) 거짓 사상을 생산해 내는 시험 20) 예배와 일상생활을 묶어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단순한 진리

## 15

### 사무엘의 출생

#### 머리말

관관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관관시대의 마지막 관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인정한 관관은 사무엘 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후기 업적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하자.

### 성서 본문: 사무엘상 1, 2장 1-11절

1장: 1.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브의 현손이요, 도후의 중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2.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 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4. 제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몫몫이 나누어 주었다. 5.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6.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7.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 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8.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 주었다. 9. 실로에서 젓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11.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알고, 14.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나?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하고 꾸짖자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16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18.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걷혀졌다. 19.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20.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21.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떼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뵈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23. “당신 좋을 대로 하구료. 젖 떼 때 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떼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24.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25.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 갔다.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1.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3. 잘난 체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다.

4.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5.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그 기가 꺾이리라. 6.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7.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잣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밑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9.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서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10.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11.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 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 교리 요약

- \*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인생을 체계화해야 한다.
- \*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우리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를 회복시켜 보존해야 한다.

### 상응 공부

사무엘 = 주님이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에서 같은 믿음 상태를 통해 말씀하심

머리털 = 가장 바깥 측면(행동), 말씀의 글자

## 해설

사무엘은 판관 시대에서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의 일생과 업적은 통일과 발달이라는 새로운 시기를 낳는 것에 있다. 사무엘의 출생과 더불어 우리는 마치 성막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 판관기에서는 케나 성막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뜻 깊은 것이다. 본문을 보면, 그 땅의 중앙은 실로임을 알 수 있다. 그곳은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웠던 자리로서, 그 당시 성막이 존재했던 곳이다. 그곳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있었고 성막에서의 제반 예식도 수행되어 졌다. 또한 진정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며 제물을 바치러 오는 신실한 사람들도 발견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도 발견된다. 우리가 주님의 허락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영적 삶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 안에서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아껴두신 것(remains)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선택하면 궁극적으로는 영적 삶에 이르게 된다.

사무엘 시대의 일반적 모습은 주님을 소홀히 여김이다. 즉 사제들까지도 부패해 있었다. 엘리는 제사장이며 착했지만 우유부단(優柔不斷)했다. 그의 아들인 흡니와 비느하스는 그를 돕고 장차 사제직을 승계 받을 인물들이었지만 매우 악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강탈했고 그 외에 많은 악한 일을 행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백 년 후 주님이 탄생하는 시기의 교회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주님의 어린 시절을 명확히 연상케 하는 대목들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엘카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연상시킨다. 이 여섯 아내들의 같은 점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늦게 갖고 덜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아 그렇지 못한 아내를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아이)들을 생산하는 과정의 느낌에 대해 물질적 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해 하는지를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먼저 태어난 아이들 보다는 사랑 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삶을 이루는

근본의 원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그로부터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무엘은 스스로의 약함을 의식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의 성숙한 자각(의식) 세계의 시작을 표현한다. 고대 히브리 국가의 이야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대해 보여준다. 성인이 되면 사람은 물질 만능에 대한 것, 이런 저런 종류의 우상에 대한 예배, 자기만족에 대한 것, 완고한 고집,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일, 그리고 동료들의 죄악을 묵인하는데 습관적으로 된 것 등의 모든 것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즉,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하느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모두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우리가 가졌던 신뢰함과 순종심이 잘 저장되어 보존된 이러한 상태들을 상징하는 사무엘은 주님의 보호 하에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른이 된 후 진정한 거듭남을 시작하기 위해 꼭 거쳐야할 첫 번째 단계이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무엘적 심정 상태”가 없다면 하느님의 등불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꺼져 버릴 것이다 (사무엘상 3:3).

###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 4)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5) 한나는 어떤 서약을 했는가?
- 6) 그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 7)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는가?
- 8)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기 당시 왜 그토록 곤란을 겪었는가?
- 9)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1) 사무엘 2) 엘카나와 하나 3) 실로 4) 엘리 5) 만일 아들을 갖게 해 주신다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약했음 6)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다 주어 살게 했음 7) 실로 8)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9) 어린 시절 우리의 상태 속에 주님이 아껴두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말씀

# 16

## 사울을 선택함

### 머리말

앞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판관시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 두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큰 인물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또는 선견자가 되었음을 염두 하자.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9:10장

9장: 1.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의 현손이요 브고랏의 중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3.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4.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림 지방으로

건너 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5. 수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6.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하였다. 7.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8.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온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 것입니다.” 9.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네 말대로 어서 가자”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10.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11.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는지?” 하고 물었다. 12.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13.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14.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 가다가 그들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15.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16.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17.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18.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19.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쳐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쳐 있소.”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 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 오너라”하고 이르자, 24.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 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26.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은 구해 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2.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 줄 것이요. 3.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6. 그 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판사람이 될 것이요. 7.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8.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9.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 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 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 된 일이나.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던가?”하며 수군거렸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던가?”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14.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15.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16.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 놓고 18.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19.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 주신 당신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2.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작들 틈에 숨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 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24.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27.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얹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 교리 요점

\* 우리의 성인 생활은 주님을 섬김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첫째가는 원리가 때로는 우리의 파생적인 판단으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 상응 공부

기름 = 사랑

왕 = 이끌어 가는 진리

사제(제사장) = 지휘 감독의 원칙은 사랑임

### 해설

사울의 이야기는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젊은이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판도를 결정짓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이들 중에는 지금 당장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성급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 젊은이들은 “저 봐라, 연장자들이 한다고 애쓴 것이 겨우 이런 꼴인가? 젊은이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는 정열적이다. 젊은이에게 통치권을 넘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외친다.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울의 이야기는 이러한 성급한 이상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두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20-30대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만사를 아주 쉽고 단순하게 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긴다. 주님은 젊은이들이 이 시기를 거쳐야 하며, 이 시기의 경험들을 가져야 함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상, 정열 그리고 불만족은 우리 마음을 동요하여 낡은 습관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변화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판단은 성급하며 표면적이어서 개인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 본성에 잠재된 깊은 문제점들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들은 개인의 거둬남이 길고 느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닥치는 모든 조건들의 몇 가지 외적 방법만 고치면 빠르고 쉽게 이뤄진다고 간주한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마음의 첫 통치자(진리)는 젊은이들이 순수한 진리보다는 외관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택된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 합리성 (natural rational)”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로 표현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 왔을 때,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던 중이었다. 믿음직하고 강직한 나귀는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 혹은 상식(common sense)을 표현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의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방안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여기며 좋아한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찾아낸 문제의 해결방안이 유용한지 입증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 젊은이들의 해결안은 항상 빠른 결과를 약속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용모에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그를 왕으로 환영했다. 사무엘

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정화됨을 뜻한다. 즉, 사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무를 알게 되는 혈연관계로 진입된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인식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그들의 첫 왕으로 선택하셨다. 사울은 첫 승리를 얻게 되자 겸손함을 잃고 많은 실수를 행하였다. 그는 주님의 예언자인 사무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진실한 통치 방법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젊은이들이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은 더 깊은 원리들, 즉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많은 난관들을 헤쳐가며 배우게 된다. 빨리 얻어지는 것은 지혜가 아닐 때가 많다.

### 질문 정리

- 1)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왕을 요구했는가?
- 2) 그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는가?
- 3)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셨는가?
- 4) 주님이 뽑은 첫 왕은 누구였는가?
- 5)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사무엘은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 7) 기름부음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8)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는가?
- 9) 사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뽑혔는가?
- 10) 실제 제비가 뽑혀지도록 한 이는 누구인가?
- 11) 사람들은 왜 사울이 왕으로 됨을 기뻐했는가?
- 12) 왕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2) 불쾌하게 여겨 거절했다. 3)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 4) 사울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6) 그에게 기름을 부음 (사무엘상 10:2-6)
- 7)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8) 미스바 9) 제비로 뽑힘 10) 주님
- 11)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였기 때문 12) 통치하는 진리

## 17

# 다윗을 기름붓다

### 머리말

사울의 약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도록 하자. 아주 어린 사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외모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울의 성향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가는 변화의 연결점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6장

16장: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나?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감니까?”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하고 이르셨다. 4.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5. “아니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재계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이렇게 일러 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재계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6.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하고 이르셨다. 8.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9. 이새가 다시 삼마를 보여 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렇게 이새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뵈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하고 11.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 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하고 일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14.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넣자 15.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뢰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18.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9.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20. 이새는 빵을 나귀로 한 바리, 술을 가죽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21.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 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았다. 22.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23.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들릴 수 있었다.

###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 상응 공부

다윗 = 우리의 영적 이성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

베들레헴 = 선에서 나오는 진리

악기들 = 말로 표현하듯 진리들로 표현함

### 해설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왔던 자연적 이성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게 됨을 인식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새로운 왕” 즉 더 깊은 진리의 이해 즉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영적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줄 새로운 이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이유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주님께에서 직접 전해지는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이성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는 자연적 이성이 지배하고 있음으로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해로움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자연적 이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된다.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선한 의지)은 자아 대신 주님께 의해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이라는 묘사에서 표현된다. 반면, 사울의 왕권이 갖는 특성은 그가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기초한 우리의 이해성은 더 깊은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한 적들과 싸우는데 성급하며 인내심이 없고, “좋게 보이는 (looks good)” 어떤 것이 악한 것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울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13장과 15장에서 다뤄진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이다. 스웨덴봄은 그것이 “선으로부터의 진리(truth from good)”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진리를 더 깊게 보고, 자연적 이성이 간파하는 마음 속 더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간파하고 일소해 버린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원리에 의해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정말 옳을 것일까?”하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 대한 결정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윗의 기름부음은 자연적인 것보다 더 깊은 합리성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첫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속에 있는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음을 표현한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은 보좌에 앉아 있었다. 즉,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었다.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오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성숙한 세대로 변화되는데 따르는 특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발달에 있어지는 참된 질서를 볼 수 있다.

사울의 우울함(dark moods, 악령)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이성의 약함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더 높은 이성이 주는 위로를 환영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당변이 되었고 하프를 켜서 그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보좌에서 밀려나야 하고 더 높은 이성이 그곳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 내의 모든 지옥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을 파괴하려고 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도왔고, 사울이 죽었을 때는 매우 슬퍼했다. 연장자들은 삶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정열과 자존심을 그리워하고 더불어 성숙함에서 오는 지혜 또한 바란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우며, 두 상태는 서로 구별되어 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면서 왕이 되었음을 고려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반쪽 형제였지만,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른 족보에 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두 타입이 우리의 삶에서 각각 때와 장소를 갖고 우리 내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 2)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는가?
- 3) 베들레헴에서는 다윗 외에 누가 태어났는가?
- 4)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 5) 그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6) 주님은 이새의 아들 몇 명을 거절하셨는가?
- 7) 사람들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8)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이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0)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11) 이외에 다윗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 12) 다윗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가?
- 13) 다윗은 사울의 관심을 어떻게 샀는가?

- 14) 사울은 어떤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는가?
- 15) 성경의 어떤 책이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 16) 다윗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질문의 답**

- 1) 그의 왕국을 잃게 될 것 2) 베들레헴 3) 베냐민, 예수 4)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5)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다”
- 6) 일곱 명 7) 양을 치고 있었다 8)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림 9) 악령이 그를 괴롭힘 10) 불이 붉고 눈이 반짝이며 잘생긴 아이 11) 용사, 시인, 하느님께 순종 12) 하프(lyre, harp) 13) 음악으로 사울의 머리를 맑게 해줌 14) 무기당번 15) 시편들 16)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영적으로 이해됨

# 18

## 솔로몬의 지혜

### 머리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있기 전, 그는 베들레헴에서 목자이고 음악가이며 용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에 의해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이 쓰였음도 기억하자.

### 성서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1.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



에 두었다. 2.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4.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5. 야훼께서 그 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7.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까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8.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9.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10.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  
 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  
 라. 13.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례 앞에  
 나아가 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6.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 섰다. 17.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  
 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깔아 뭉개어 죽였습니다. 20.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잡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다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23. 그 때 왕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고 하는구나.” 24. 그러면서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내오자 25.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27.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 교리 요약

\* 의를 사랑할 때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 상응 공부

귀와 듣는 것 = 순종

성전 = 주님이 거처하시는 진정한 인격

솔로몬 = 말씀에 순종함을 사랑하게 될 때 있게 되는 통치하는 진리

### 해설

세 왕들 즉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거듭나는 우리의 단계를 표현한다. 사울 단계의 우리는 계명을 의무로서 따르며, 세상에서 번영하고 더불어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 다윗 단계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며, 우리의 행실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의지에서 계명을 지킨다. 솔로몬 단계의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한 스스로의 삶에서 그것의 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따라서 우리의 심정 안에 계명들이 새겨져 있게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 바램과의 싸움이 없게 된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을 의미한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함이 평화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해력이 있는 심정(understanding heart)”을 주님에게 요구했다.

지식(knowledge)과 총명(intelligence) 그리고 지혜(wisdom)는 서로 다르다. 누군가가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 지식들을 조직화하여 삶에 응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총명치 못하며 더 나아가 삶을 통해 총명과 지식을 입증할 때까지 지혜를 얻지는 못한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다. 성전 건축에 이용된 각종 자재들 즉 돌과 나무 등은 진리와 선함에 관한 기초적 상징물이다. 성전을 짓는 자재들은 거룩한 땅 밖에서 온 것들로 각각의 자재는 현지에서 다듬어져 가져왔다. 이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일상생활에 응용되어 우리의 것으로 만든 진리와 선함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속의 돌과 목재들을 다듬는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돌들과 목재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우리의 성전은 천국적 인격이며, 주님에 의해 우리들 안에 지어진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읽어 보자.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이 7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전이 아주 조용하게 지어져서 7년이 거의 지나서야 (즉,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선함이 넉넉할 때), 성전은 그의 형태를 우리의 의식 안에 드러낸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하여 실질적으로 천국에 속하게 된다.

성전의 지성소는 전체가 금박을 한 나무앞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는 우리의 심정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을 상징한다. 모든 성전 건축이 마무리 되자 궤는 그 안으로 모셔 졌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으며” 솔로몬은 엄숙한 봉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중심이 되어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삶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 까지도 더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솔로몬이 가진 굉장한 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진실한 선한 삶이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부를 자세히 그린다.

엄밀히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솔로몬과 같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의 시험을 극복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상태를 한정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된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악들을 인식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신뢰감 속에 있던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영적인 부의 일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다. 우리는 모든 진리가 우리 자신의 총명의 산물이 아니며 주님의 것임을 심정(heart)으로부터 인식하기 전에는 슬기로워질 수 없다. 성경에서의 아들은 언제나 진리를 의미한다. 두 어머니는 진리에 대한 두 종류의 다른 애착을 표현한다. 그래서 한 여인은 진리에 대한 참된 애착을, 다른 여인은 진리에 대한 거짓된 애착을 의미한다. 진짜 어머니는 진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했지만, 진리가 나쁘게 되는 것 즉 그것이 파괴되는 것 대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반면, 가짜 어머니는 진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오늘날 주님과 말씀에 관한 거짓 가르침은 인간의 총명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중심을 지키면서 주님과 말씀을 불신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 그러한 이유들을 분석하면, 우리는 많은 거짓들의 홍수에서 건져내지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 질문 정리

- 1)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 2) 다윗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성경의 어느 책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는가?
- 4) 다윗의 통치 때에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 5) 다윗은 궤를 어디에 놓았는가?
- 6)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7)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 8)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솔로몬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10)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가?
- 11) 기브온에서 꿇던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한 이는 누구인가?
- 12)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 13)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14)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15)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16)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에 순종했다 2) 음악, 시인 3) 시편 4) 평화 5) 예루살렘 6) 솔로몬 7) 다윗 8) 평화스러움 9) 기브온 10) 성막(tabernacle)  
 11) 주님 1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13) 이해력이 있는 심정 (understanding heart) 14) 성전(temple) 15) 40년 16)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랑함

# 19

## 엘리아와 아합

### 머리말

본과의 역사적 시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왕국의 분열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왕국이 분단된 이유도 이해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7, 18장

17장: 1.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아가 아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2.야훼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내렸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4.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 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5. 엘리아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7.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

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9.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렘다로 가서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10.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사렘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뿔감을 짚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11.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12.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뉘우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뿔감을 조금 주워 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뉘우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15.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 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16.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뉘우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17.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었다. 20.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 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1. 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3.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궁내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4.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낸 사람이었다. 5.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 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살살이 뒤져 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6.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이,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7.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십시오.” 9.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10.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12.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내었습니다. 14.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16. 그러자 오바디야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19.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20.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21.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 오십 명이나 있습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황소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26. 그들이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 보아라.” 28.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갈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29.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 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1.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신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열 두개 모았다. 32. 엘리야는 그 돌 열 두 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두 가마 정도 들어 갈 만큼 큰 도랑을 팠다.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동이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34.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을 붓자 35.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렀고 열 도랑에 가득 괴었다.

36.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40.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가 거기에서 죽였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젠 돌아 가서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43.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여 가 보라고 명하였다.

44. 시중은 일곱 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중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준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45.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어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을 향하여 가는데 46.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 갔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거듭남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지성 부분은 심정부분 보다 더 즉각적으로 시험에 복종 당한다.
- \*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인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 상응 공부

유다왕국 = 의지 부분

이스라엘 왕국 = 이해성 부분

엘리야 = 예언적 말씀

### 해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솔로몬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상태가 절정을 이룬 듯하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깊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는 성공 역시 그것에 뒤따르는 시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위풍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히브리 국가는 타 국가와 결혼을 금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 국가들로부터 많은 아내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삶의 영적 측면에서 종교적 원리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좋아하며 맛보려는 우리의 경향성(tendency)을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선한 생활을 확립했다고 여길 때 빠져 들기 쉬운 결점 중의 하나이다. 솔로몬은 아내들이 예배하는 우상들을 위해 제단과 신전을 지었고, 결국 그 또한 우상을 예배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리하여 그의 왕국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고, 그의 아들은 남쪽 부분의 두 지파만 통치하게 되었다. 분열된 왕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이스라엘은 이해성을 표현한다. 솔로몬 통치 하의 단일 왕국으로서의 가나안 땅의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아는 옳은 것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상황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아주 짧아서 곧 의혹들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 즉, 스스로가 좋아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늘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혹은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등의 의혹이다.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솔로몬 왕국의 장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price)에 의문을 제기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늙은 대신들의 충언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스스로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떨어져 나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유대 왕국으로 빠져 나감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예배하도록 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자연적 선 즉 우리의 외향적 선한 일들을 진정한 선으로 여기며 주님을 섬기고 인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됨을 표현한다. 우리는 물질적 혜택만을 진정한 선함으로 여기는 세상적인 논리에 설득되기 쉽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친절함과 자애로움이 눈으로 확인되면, 그는 주님을 예배하며 하느님을 인식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친절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추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는 의도와 그분의 진리에 삶의 지침을 두지 않은 행위는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와 지침이 마음에 없게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금송아지를 세워 하향하는 모습과 같으며, 우리의 영적 하향의 시초가 된다.

다윗의 계보는 유다 왕국을 끝까지 사수했다. 그 왕국의 소수 왕들은 아주 선하여 진정한 예배를 유지시키면서 부분적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제 16장을 보면, 이 왕국의 통치기간은 짧고 폭풍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지와 이해성이 나뉘져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자아를 최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는 어떠한 원리도 길게 유지될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악의 시리즈와 우상적 왕들 그리고 왕권이 폭동으로 자주 바뀌는 기록이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사악했던 아합은 보좌에 올라 역사상 악녀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은 모두 바알을 숭배했다. 이것은 자아 사랑이 삶의 표준이 됨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올 수 밖에 없었음이 쉽게 이해된다.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영적 가뭄과 기근은 바로 자아를 마음의 중심에 앉힌 결과이다.

엘리아의 이야기는 앞서 보았던 어두운 배경과는 다르다. 엘리아는 모든 예언자들처럼 말씀(the Word)을 표현한다. 그가 아합에게 말하는 것같이, 주님은 우리가 자아 중심에 빠지고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될 때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신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못 들은 척 하려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부터의 소리가 있다. 주님께서는 엘리아를 먹이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리를 보존 시키신다. 우리는 영적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게 되면, 엘리아를 찾아 나서며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엘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거대한 사건들 중 하나다. 이 이야기의 세세함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감명이 있고,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가뭄이 계속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해져서 새로운 전환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말한다. 이 시기의 마지막 시점에서 아합 역시 물을 찾아 나선다. 그는 하느님을 경외한 오바디야를 충신으로 데리고 있었다. 오바디야란 삶의 더 나은 것에 대한 기억을 뜻한다. 이 기억은 악이 우세할 때도 살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악한 사람의 마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아합은 물을 찾아 나설 때 이 길로 향한 것이다. 반대로 오바디야는 다른 길로 나섰기 때문에 엘리아를 만났는데, 엘리아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오바디야였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을 목격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중심이 되어 버린 자아를 숭배하는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낮은 차원에 있는 마음은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함으로 자아 숭배와 주님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알의 사제들과 예언자들은 아주 많았는데, 이들 모두는 자아 숭배를 옹호하는 거짓된 추론들을 의미한다. 이런 거짓 추론들은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바알을 불러댄다. 자아 사랑은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이타적 사랑 즉 주님의 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열 두 개의 돌로 쌓은 엘리야의 제단은 자신을 지배하도록 주님의 법을 쌓은 것을 의미한다. 엘리야의 제단에 바쳐진 송아지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것의 표현이다. 번제물 위에 쏟아 부은 물이란 우리가 진실 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된 것들 즉 주님에 대한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세상적 추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똑바로 세운 제단 위에 하느님의 불이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과멸되었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이는 우리가 한 번 더 하느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다시 행복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2) 솔로몬은 말기에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 3) 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 4)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어느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 6) 북쪽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 7) 역사가들은 북쪽 왕국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가?
- 8) 아합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 9) 아합의 통치기간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 10)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 11)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
- 12)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 13) 엘리야가 아합에게 되돌아 와서 어떤 대결을 제시했는가?
- 14) 대결은 어디서 있었는가?
- 15) 바알 예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하느님을 불렀는가?
- 16)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지었는가?
- 17) 엘리야가 주님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8)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9) 바알 예언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20) 대결의 결과로 무엇이 왔는가?
- 21)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성전 2) 우상에게 예배했음 3) 왕국이 갈라짐 4) 이스라엘, 유다 5) 유다  
 6)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7) 아합 8) 이세벨 9) 가뭄 10) 엘리야 11)  
 죽이려고 했음 12) 까마귀가 그를 먹였음 13) “불로 응답하는 하느님...” 14)  
 가르멜산 15) 한 낮이 되기까지 불렀다 16) 열 두 개의 돌로 쌓고, 물 열 두  
 동이를 부었음 17) 불이 내려왔다 18) “야훼가 하느님이십니다” 19)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 20) 비가 내렸다 21) 이스라엘 - 지력 또는 이해력, 유다 - 심정  
 또는 의지

## 20

# 아사왕의 통치

### 머리말

본과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됨과 그 두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의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유다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했음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장: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10. 예루살렘에서 사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1.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12.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13.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리나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 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15.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은집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8.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19.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20.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룬,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21. 바아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다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22.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 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23.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24.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첫째에 주님을 섬김 이외의 것을 놓는 일에 끊임없이 대항해야 한다.

### 기본 상응 공부

시리아 = 자연적 평면에서 쓰이는 합리적 능력

발 = 외향적 지침 (outward conduct)

## 해설

앞서 우리는 분단된 왕국이란 바렘(유다)과 생각(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상태의 삶을 묘사한다고 배웠다. 솔로몬 왕국으로 표현된 평화스럽고 행복한 상태란 우리의 심정이 영적 성장으로 바르게 향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며 반역적인 시기도 많이 가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안에 있었던 악한 왕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선하게 되기를 늘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자주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한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통치기간은 자기 검증의 시기에 해당된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였다.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계보였다. 이는 심정으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임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수도를 예루살렘에 둬서 우리가 주일 혹은 최소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라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 유다의 백성들은 큰 축제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러나 예루살렘(교회)밖, 즉 세상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습관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높은 장소(high place)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 뜻하는 것이다. 높은 장소(산당)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신을 뜻한다. 우상들은 세상적 사람들이 인생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목적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목적들에는 돈, 권력, 지위 쾌락 혹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 등이 있다. 아사왕은 이러한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보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자만심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의미한다. 스스로의 선한 면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쉽다. 마치 산당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안의 우상만 치웠을 때 우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쉬운 것처럼 말이다. 아사왕의 아들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손자는 악하여 결국 그 땅은 다시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렸다.

아사왕의 통치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성읍을 지어서 유다 왕국을 위협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선한 의도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논쟁을 벌이는 노력을 표현한다. 이러한 위기에 아사왕은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했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로

그 대가를 치렀다. 이러한 아사왕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험이 닦혔을 때 우리가 신앙 보다는 기적에 기대고 그것의 이해를 “자연적인” 것에서 찾거나 교회를 섬기며 충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이유를 어떤 상식적 추론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사왕이 포기한 보물들이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말씀인 은(silver)과 내 심정 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하는 금(gold)이었다. 시리아란 선과 진리에 관한 외적 지식들을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이 친구 혹은 적도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시리아는 친구로서 나타나지만, 그 원조의 목적은 그들의 이득을 위함이었지 우정 때문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아사왕은 동맹자에 의해 더 약해졌고 시리아는 더 강해져서 점점 위험한 적으로 되는 상황으로 역사는 전개 되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세상적인 논쟁들 역시 때로는 아주 쉽게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때가 많은 것을 표현한다.

노령의 아사왕이 “다리를 앓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추론과 타협하여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은 충분히 신뢰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지침이 곧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길에 서서 걸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며 긴장하고 불안하여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 전체를 통해 걷는 것(walking)이란 삶의 지침을 상징한다. 자신의 원리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에게 “마음을 넓게 써야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멸망으로의 길은 넓고 생명으로의 길은 좁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오늘 공부에 등장한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 2) 그는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 3) 그가 행한 일 중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 4) 그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 5) 이스라엘 왕은 아사왕을 이겨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 6) 누구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청했습니까?
- 7) 아사왕은 무슨 선물을 시리아 왕에게 보냈습니까?
- 8) 노령 때에 아사왕은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 9) 오늘의 우리에게 우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질문의 답

- 1) 아사(Asa) 2) 선왕 3) 우상을 파괴한 일 4) 산당의 제거
- 5) 라마를 지었다 6) 시리아왕 벤하닷 7) 성전의 금과 은 8) 발병
- 9) 돈, 권력 등등 같은 것에 “예배함”

## 21

### 시편에 관해서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시편 19편과도 연관 된다. 시편서의 역사와 성전 예배 때 시편의 사용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시편의 활용 및 시편서의 영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다윗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꼭 읽어 두자.

#### 성 서 본 문: 시편 1편, 사무엘하 23장 1-2절

1편: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5.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사무엘하 23장: 1.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꾸준히 찾고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
- \* 우리가 무신론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향한다.

### 상용 공부

강 = 주님께에서 나와 흐르는 진리  
잎 = 원리들이 자란 생각들  
열매 = 유용한 일들  
겨 = 무가치한 생각들

### 해설

음악은 감정 표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말이나 어떤 형식 없이도 노래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는 콧노래나 휘파람을 부는 것으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로 노래하면, 그것은 말 보다 더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다. 이는 감정이 음악에 의하여 더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을 단순히 읽는 것 보다 노래 형식을 취함이 더 나으며, 음악이 주는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창하는 법을 배우면 더욱 효과적이다. 시편은 노래로 부르도록 의도 되었다. 시편은 음악가이기도 했던 다윗을 통해 써졌기 때문이다. 시편은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에 대한 규정으로, 레위지파의 가문은 시편들을 노래 부르도록 훈련되어 악기를 켜며 노래했다. 이는 역대기상 15장 16-22절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유언을 통해 시편이 그의 창작이 아님을 밝혔다. 시편의 말들은 주님께 의해서 다윗의 입에 놓여진 것이었다. 열왕기하서와 이사야서 사이에 있는 열 책 중 시편만이 내적 의미를 지닌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위의 열 책과 룻기,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는 따로 분류했다, 그들은 그 책들을 게투빔(Kethubim), 혹은 신성시 할 만 한 저술,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보다 영감이 적은 책들로 간주했다. 새교회(New Church)에 대한 성경속의 “정경(canon)”은 히브리인들의 정경에 시편,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가 포함된다. 새 교회의 경우 이 책이 정경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하는 구분은 내적 의미를 포함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시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시편은 그분에 대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하신다. 시편의 일부는 글자에서조차 주님의 생애를 예언한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 시편 22편 18절을 읽어보자.

시편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본성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삶의 경험들로부터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한 안내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꾸준히 구해야 함 등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시편 제 1편은 우리 삶의 모형이다. 우리가 축복 받고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법을 기쁘게 여기며 밤낮으로 그것을 되새겨야 한다. 이럴 때만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번성케 해 주신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와 같고 강건하여서 어떤 폭풍우에도 잘 견디어 낸다. 무신론자는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도 같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다.

시편은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고 의를 행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하면서 시작된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의 세 가지 금기 사항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출발점과 같이 중요한 것들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절에 있는 세가지 자세 즉 걷고, 서고 그리고 앉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으나 세상적이며 아주 이기적이어서 종교나 선한 원리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마주 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해가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함께 하자는 요청을 거절치 못한다면, 더욱이 그것을 엄중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치 않고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도달하게 되고 그는 우리를 집안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즉각 헤어지는 대신 그와 더불어 얘기하면서 대문간에 우물쭈물 하며 서 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앉는다. 이제 그는 우리를 자기의 동료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리에 반대된 생각이나 암시를 진정한 원리로 대체시켜 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시편 1편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새교회인인 존 바이지로우(John Bigelow, 1817 - 1911)는 「저항은 초반에(Resist Beginning)」라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에는 참아주다가, 그 다음에는 불쌍하다고 동정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 식구같이 얼씬 안아준다”라고 표현한다. 이 책에는 우리 마음에 간직할 만한 유용한 구절이 많다. 우리의 가장 공통된 경향 중 하나는 우리가 금지된 길로 들어섰다가도 우리의 힘으로 쉽게 그 길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되새기기 위해서 시편을 공부해야 한다. 주님 대신 자아를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 질문 정리

- 1) 왕국이 분단되기 전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다윗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다윗은 그가 쓴 것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4)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쓰인 책은 무엇인가?
- 5) 시편이란 무엇인가?
- 6)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7) 주님은 시편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하는가?
- 9) “복된 자”란 무엇을 뜻하는가?
- 10) 행복해지고자 하면, 금해야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 11)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2) 선한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 13) 악한 자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 14)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 15)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 질문의 답

- 1) 다윗 2) 음악과 시 3)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4) 시편 5) 노래
- 6) 찬송가(hymns) 7) 시편은 주님께 관해 쓰여 있다고... 8) “복되어라...” 9) “행복한 자” 10)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11)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12) 나무(tree) 13) 겨(chaff) 14)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심
- 15) 주님이 법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 22

### 이사야를 부르심

#### 머리말

본과에서는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찌야 통치 13년 또는 서기 전 780년쯤에 태어났으며, 예언자로서 그의 활동기간은 약 60년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미가(소 예언서 부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들이다.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즈키야 왕의 역사적 전말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분류된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아나돗(Anathoth)이라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태어났으며 사제 중의 한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살았으며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혹독한 시달림을 겪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때는 이사야 시대에서 약 130년 후였다. 그는 하느님이 내린 직분을 그의 고향땅에서 약 41년간 수행했고, 그 후는 이집트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약 11년 전 즉 서기 전 599년에 여호야김과 그의 시종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강 줄기의 하나인 「그발」강가에서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텔아브」에 집이 있었고 결혼도 했다. 그는 타향 생활 15년째 되던 해(B.C 593)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붕괴 후 16년 동안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그는 타향살이 동안 줄곧 백성들에게 존경 받았고, 많은 장로들 역시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타향생활 중에 자연사했다, 그의 무덤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케펠(Kefel)」에 위치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다니엘과 엇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의 일원으로 여호야김왕의 집권 3년째 되던 해 (604 B.C)에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 갔다. 그는 세상적 부귀를 누린 유일한 히브리 예언자이기도 했다.

## 성서 본문: 이사야 6장

6장: 1. 우찌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2.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4.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5.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 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8.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9.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10.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혜지면 어찌 하겠느냐?”

11.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하고 여쭙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 내시고 나면 이 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13. 주민의 십분의 일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찍혀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 교리 요점

\*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얻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

며 주님을 기꺼이 섬기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 상응 공부

보좌 = 심판

스랍(Seraphim or Cherubim) =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얼굴 = 내면의 인격

### 해설

예언서 열일곱 권이 성경에 배열된 순서는 역사적 연대와 꼭 맞지 않는다. 몇몇 예언서들은 유다왕국과 이스라엘왕국이 몰락된 후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열왕기서의 연대순을 따른다. 그 중 요나서는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예언서로 추측된다. 예언서는 각기 다른 때와 장소를 가지며, 그 말씀들은 당대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원문의 특성이나 성경의 글자에 나타나는 역사적 암시들을 이용하여 역사적 배열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는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한다.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신앙을 배제한 인간의 논리들일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서의 가치는 예언자의 성품 또는 시대와 백성에 대한 결과들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가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언서로부터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우리의 심정상태 혹은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스웨덴북을 통해 새 시대에 주신 내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 예언서는 간단한 교훈을 담는 부분과 글자적으로 볼 때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dark sayings)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할 양식(food)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이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님은 대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가 삶의 길가에 놓인 웅덩이를 피하고 행복으로 인도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배려하신다. 주님은 올바른 길을 찾는 이들을 도우시는데 결코 소홀 하시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예언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다.

대 예언서 즉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에 속한다. 첫 두 권은 왕국이 몰락하기 전에 예언된 것이다. 예레미야는 왕국 몰락 후에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애가도 썼다. 예제키엘서와 다니엘서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왕국이 몰락된 후 포로 생활 지역에서 예언된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왕국의 파멸을 예언하여 심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예언자들이란 곧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은 곧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상징하게 된다. 이것을 상응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암담하고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은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대목으로서,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사야가 했던 경험은 누군가가 주님을 대신하여 타인에게 말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 그 중 첫째는 왕이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겸손한 태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단의 불 즉 주님의 이타적 사랑의 접촉으로 인해 성별 또는 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발적이어야 한다.

본문 마지막 절에는 아껴두신 것(remnant)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며 기억하는 이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살아 있도록 허락하시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껴두신 것 즉 거룩한 씨가 남아 있게 된다. 거룩한 씨란 언제나 주님께로 되돌아 갈 가능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안의 양심이 늘 살아있도

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부피에 상관없이 그 선함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측면에서 내려다보면 우리의 지성 안에 있게 되는 진리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올바르게 슬기롭게 인생경로를 선택했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3) 어떤 판관이 예언자였는가?
- 4)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 5)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어떤 책들인가?
- 6) 예언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7) 왜 대 또는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 8) 대 예언서는 몇 권인가?
- 9) 대 예언서의 책 이름들은 무엇인가?
- 10) 본문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 11)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13) 거룩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4) 이사야는 왜 놀랐는가?
- 15) 주님은 이사야의 입술이 순수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 16) 주님은 무엇을 물으셨는가?
- 17) 이사야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8) 예언자들의 선교란 무엇인가?
- 19)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1)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2) 엘리야 3) 사무엘 4) 율법서, 예언서, 기타서적  
5)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6) 대 예언서; 소 예언서 7) 책의 부피에  
따라서 8) 네 권 9)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10) 이사야서 11)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12) 주님 13)  
여섯 날개 14) “불순한(unclean)” 입술 때문이다 15) 뜨거운 돌을 입에다 대었다  
16)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17)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8)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함 19) 주님의 환상을 볼 것, 겸손할 것, 성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길 것

# 23

## 활활 타는 화덕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과 포로가 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바빌론에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포로라는 단순한 사실의  
의미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다니엘 3장

3장: 1.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육십 척이요, 나비는 육 척이나 되었다. 2. 느부갓네살왕은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들였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4. 그 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들으시오. 4.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요.” 7. 그리하여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엎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8. 이 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대인들을 고발하였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10.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 엎드리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12.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 오자, 14.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리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17.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 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19.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20.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22.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꿩꿩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24.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꿩꿩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나? 저 네 께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하면서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눈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2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여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 내셨구나. 29.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 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 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30.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31.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3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33.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웠다. 그 베푸신 기적은 굉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



## 교리 요약

\* 주님은 우리가 곤란과 시험의 상태일 때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 상응 공부

아시리아 = 마음의 합리적 평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 근거한 지배욕

느부갓네살 = 자기충명, 거만, 자기 생각만 내세움, 자아사랑이 주도하는 원리

### 해설

예언자 다니엘은 말씀 중에서 아주 특출한 인물에 속한다. 그는 부와 권력이라는 시험과 맞서면서도 충실성과 용기를 잃지 않는 훌륭한 본보기로서 성경에 우뚝 서 있다. 그는 성서의 여느 인격자들과 아주 다르며, 약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빌론 왕이 쓸모가 있다고 여겨 유다 함락 초기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 일부인 다니엘을 비롯한 준비되어진 젊은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자연적 속성 안에 있게 되는 이기적이며 세상적 요구에 일찌감치 복종당해 버린 우리의 영적 속성과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님의 준비하심을 상징한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 세 명은 호화로운 음식과 바빌론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거절했다. 우리 역시 이기적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의 진리들을 공부하려 한다면 영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즉, 우리는 날마다 강함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얻어 가게 된다.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 세 명이 “궁중요리를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살이 올라 보기에 좋았다.”고 쓰여 있는 바와 같다.

외적 번영 혹은 칭찬 자체는 자아에 의존하는 시험과 하느님을 잊게 하는 새로운 시험을 불러들인다. 이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네 명의 청년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된다. 각각의 히브리어 이름은 주님의 이름 즉 엘로힘(Elohim) 또는 여호와(Jehovah)의 음절 ei 또는 ah를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이름에서는 이 음절이 빠지고 자아를 칭찬하는 특성을 표현하거나 우상의 이름에서 취한 것을 포함한다. 바빌론은 성경 전체를 통해 “자아사랑에 근거한 지배욕”을 상징한다. 이처럼 간단한 언어 하나에까지도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기적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란 자기 총명이라는 원리를 의미한다. 즉, “나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자세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은 자아를 금으로 도금해 놓은 것을 상징하며, 하느님 대신으로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만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첫 번째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 속의 자연적 바램은 너희를 태워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아를 통제함으로 인한 행복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자아를 우상으로 세우려는 시험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경외함 대신 파멸을 내다보게 된다. 또한 우리의 자연적 열정은 증폭되어 우리를 태워 버린다. 이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지핀 불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불에 태우고자 집어 던진 군인들을 삼키는 장면과 같다. 불속에서 세 청년은 “몸이 불에 데기느라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눌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다. 그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했으므로, 주님은 시험이라는 불가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에 부딪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즉,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 갔을 때 그들은 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왕국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과 달랐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하며 외로운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오로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진짜 무기력하여 누구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고 선한 인격 앞에도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한다. “군중을 따름” 또는 “남들도 다 그러니까”라는 말은 나약하고 구태의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떤 용기도 발전도 없다. 주님의 가르치심처럼, 반석위에 지은 집만이 굳건히 서 폭풍우를 이기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포로들 중 어느 왕족 청년이 성경을 썼는가?
- 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 4)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해롭게 했는가?
- 5) 바빌론 왕은 누구인가?
- 6)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7) 그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 8)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절했는가?
- 9)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 10)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 11) 불가마 안에서 세 청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12) 불가마에 세 청년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14)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2) 다니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 아님
- 5) 느부갓네살 6) 금 신상 7)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 신상에 절하라
- 8) 아님 9) 활활 타는 화덕에 던지라고 했다 10) 아님 11) 주님 12) 죽었다
- 13)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하여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 14) 자기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사랑

## 24

# 예언자 미가

### 머리말

본과는 소 예언서에 관한 공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소 예언자들”과 “소”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성 서 본 문: 미가서 6장

6장: 1.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2.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4.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5.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냇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6.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7.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만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8.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9.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12.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 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10. "천벌 받을 것들, 부정한 되로 부정 축재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11.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13.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5.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 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14.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 보려고 버둥거리도 빠져 나갈 길 없고, 빠져 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16.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 따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 교리 요약

\* 선행(charity)은 삶의 근본이다.

### 상응 공부

베들레헴 = 선과 하나되는 진리

번제물 = 내적 예배의 표현물

희생 제물 = 파생적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적 예배

## 해설

구약 성서를 종결짓는 열두 권의 책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소”라는 글자는 각 책이 짧아서이지 내용이 빈약해서 붙여진 것은 아니다. 「예언서와 시편」에 관한 스웨덴봄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 교회 속에 축적되어간 악들로 인해 고대 유대교회는 완전히 파멸(vastation)되었고, 그뒤 더 내적인 교회, 순수한 품성을 지닌 교회 즉 새로운 교회의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열두 예언자 모두는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각기 독립된 후 예언하기 시작했다. 요나서는 소 예언서 중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요나는 호세아나 아모스와 부분적으로 동시대에 살았으므로 유다의 히즈키야왕과 아사왕 사이인 웃시야왕, 아마시야왕 혹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도 추측된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소 예언서 미가는 대 예언서 이사야와 동시대, 즉 유다의 히즈키야, 아하즈, 야담 이렇게 세 왕들의 통치 시대를 포괄한다. 이스라엘의 함락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의 히즈키야왕 통치 때였으므로, 대부분의 소 예언서는 유다에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의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상태여서 북쪽으로부터의 외세 침략에 아주 약해져 있었다. 마지막의 학개,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이 바빌론 유수이후 귀환하면서 예언된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소 예언서는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 추론에 의해 침식당하고 그것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선한 의도가 이기심에 대항하고 투쟁하며 외칠 때 혹은 우리가 이기심으로 휩쓸렸을 때 오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소 예언서들의 내용은 어린이들보다 연장자에게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구절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 6장 8절에서는 선한 생활을 위한 규율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보자. 예배에 있어서 형식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만약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식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담지 못하는 습관적인 행동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즉, 예배 의식은 우리 일상의 진정한 선함과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선함에는 세 가지 평면이 요구된다. 이는 행동 면에서 정의로울 것, 생각 면에서 고상하고 친절할 것 그리고 심정 면에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함이다. 이 모든 요구사항은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 준다. 우리가 사리사욕을 우선하면, 우리는 정의로울 수 없다. 또한 우리가 타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면, 우리의 생각은 친절하거나 고상해 질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의지로 해 내려고 하지 않거나 주님에 관해 더욱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겸손해 질 수 없다. 본문 10-12절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규율을 위반하는 실례들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규율의 빛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특수한 행동과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인식하여 우리의 거듭남의 길에 있는 걸림돌들을 치워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걸림돌들을 치워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신 속의 과오와 싸워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세 가지 규율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 행복하며 향상된 삶을 누릴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의 예언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미가는 분단된 두 왕국 중 어느 곳에서 예언했는가?
- 3) 미가는 세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했다. 세 왕은 누구인가?
- 4) 주님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 5) 미가 예언시대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했는가?
- 7) 미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8) “to do justly”는 어떤 의미인가?
- 9) “to love mercy”는 어떤 의미인가?
- 10) “to walk humbly with thy God”은 어떤 의미인가?
- 11) 선한 생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리 삶의 어떤 세 가지 단계에 있어야 하는가?
- 12) 왜 미가의 예언에서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 질문의 답

1) 미가(Micah) 2) 유다 3)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4)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5)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독함 6) 희생 제물 7) 공의를 행하며(to do justly), 자비를 사랑하며(love mercy),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8) 공정하고 정직함 9) 친절하고 도와주며 용서함 10)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 11) 행위(conduct), 생각(thought), 의지(will) 12) 우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깨끗케 하는 단계로 발전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의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5

## 성전의 재건

### 머리말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가구와 재건에 관한 근본적 계획을 고찰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궤 또한 사라져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된 것은 모두 주님이 거룩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 성서 본문: 하께서 1장

1장: 1. 다리우스왕 제 이년 유월 초하루였다. 아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스알디엘



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3. 야훼께서 예언자 하깨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4.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5.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6.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밀 빠진 독에 물붓기다. 7.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8.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9.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빠 돌아다닌 탓이다. 10. 그러니,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싶으냐? 땅이 소출을 낼 성싶으냐? 11.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기름도, 밖의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곯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하깨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13. 그래서, 하깨는 야훼의 특사로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14.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들어 가 일을 시작하였다. 15. 때는 유월 이십사일 이었다.

### 교리 요점

\* 건전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만 한다.

## 상응 공부

용기, 그릇 = 교리 (doctrine)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 =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의 교리들

## 해설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수용소 신세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귀환했던 것, 성전의 재건 그리고 국가형태의 재조직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두 책은 말씀의 내적 의미는 없지만, 성경에 수록된 다른 책들과 더불어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역사적 자료와 배경을 제공한다. 에즈라서 1장 1-2절에서는 “페르샤 황제 고레스 제 일 년 이었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 주셨다.”라고 기록된다. 페르샤는 당시 강력하여 바빌론의 영토를 정복했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 후 거룩한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29:10) 그들이 귀환해야 했던 것은 예언에 따라 주님의 강림 전에 준비과정으로서 유대주의의 재건설과 성전의 재건에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에즈라서에서 서술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환경상의 요인과 예언자 하깨가 지적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심정상의 요인을 비교해 보자. 우리는 에즈라서에서 백성들이 기록해 두고 기억하기를 원한 그대로의 바깥쪽 역사에 관한 실상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하깨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안쪽에 감춰져 있는 영적 요인들을 알 수 있다. 에즈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재건 과정을 16년이나 지연 되게 했다고 생각해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깨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지연된 원인이 주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들의 안락을 우선하고자 핑계를 찾았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2절에서는 “이 백성들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서술한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점을 핑계로 삼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세상은 아직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은 안정된 교회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활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무언가를 찾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거야.” 하지만 이런 주장과 방법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게으름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하깨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과의 좋지 않은 일을 성전재건의 지연에 대한 핑계로 삼은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결실을 맺는데 실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안락함에만 관심을 둔다든지 또는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본문의 역사는 에즈라의 견해와 하깨의 견해를 비교하고 고찰하면서 알 수 있다. 전쟁을 예로 생각해 보자. 흔히 전쟁은 적국에 대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형세에 따른 결과로 추측되지만, 전쟁의 사실적 원인은 모든 이들의 심정 속에 틀어박힌 이기심과 세상적 견지로 인한 것이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개개인의 심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평화는 군사적 균형, 정치 혹은 경제적 조절에 의해 달성되고 보존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평화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겸허한 개개인의 심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진정한 평화가 평화의 왕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의롭고 자비로우며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쌍방의 차이점을 보완해 간다면 세상적 평화는 당연한 것이다. 주님의 성전은 반드시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심정과 지성 속에 먼저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즈라의 자취하에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매우 슬퍼했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깨서도 이러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2장 3절)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미 황폐되어 저질이 되어 버린 인격을 재건하는 과정의 시작이 초라하고 불품없이 느껴짐을 뜻한다. 내 속에 이미 틀어박힌 나쁜 습관을 늘게라도 깨우치고 고쳐 보려고 애쓸 때, 남모를 고심과 실망만이 마음에 가득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하깨를 통해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면 그 마지막은 그 시작 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하깨서 2:9)

### 질문 정리

- 1) 어떤 통치자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 되었는가?
- 2) 그들의 포로생활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가?
- 3) 고레스왕은 귀환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 했는가?
- 4) 왕은 귀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되돌려 주었는가?
- 5) 귀환자들은 성전재건의 지연 원인으로 어떤 것을 핑계 삼았는가?
- 6) 어떤 예언자가 핑계 많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는가?
- 7)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 8) 성전의 금과 은 집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9)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고레스 2) 70년 3) 성전을 재건하라고 4) 성전에서 강탈해왔던 금과 은 집기들 5)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6) 하깨(Haggi) 7) 자신들의 안락에 더 관심이 있었다. 8)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 9)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유대주의의 재 건립과 성전재건을 위함이다.

## 26

#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 머리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속적인 성서임을 주지해야 한다. 신약과 구약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거룩한 땅에 정착함과 더불어 옛날의 예배를 재건했다. 모든 신약 성서의 공부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의존되어 연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 구약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져 있듯이, 우리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관해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이중적 본성 즉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the divine)과 신성을 옷 입힌 마리아로부터 온 유한한 인성(the finite humanity)을 기억해야 한다.

### 성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1장: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22.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2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2장: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거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증하여 베들레헬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교리 요점

- \*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더 이상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통해 인도하실 수 없게 되자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
- \* 어린 시절 주님이 받은 교육은 말씀의 글자에 관한 것이었다.

### 상응 공부

유다 = 교인들이 갖는 의지 또는 동기적인 측면

사마리아 = 사고적인 측면

갈릴래아 = 외향적 행동 측면

## 해설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함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주님의 강림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간혹 “주님은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았는가?”, “주님은 사람들이 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버려두셨을까?”,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 왜 사람들이 그토록 고생하도록 방치하셨는가?”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즉 영적으로 최하의 상태가 된 인간들과 접촉하시려는데 있기 때문임을 염두하면 쉽게 가능하다. 즉 주님께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실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극에 이른 악을 스스로 입으신 인성으로 이겨내심으로 더 이상 지옥의 힘이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를 염두하고 시편 139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시편 139편은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즉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 계시며...”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강림하신 것이다. 주님은 가장 낮은 상태의 인간 본성을 입으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승리하며 거치지 않은 상태가 없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됨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한 밤중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온 세상이 전무후무한 최악의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해 졌을 때 그 안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온 인류의 희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상응으로 담겨진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에 미리 담겨진 삶을 인간들 가운데 살아 내실 때가 오자, 그분은 상응적으로 예언 되어졌던 배경을 통해 오신 것이다. 성서의 예언을 통해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만이 그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려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기독교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발달하고 성장했다하더라도 교회의 시작은 유대교회 즉 율법 시대의 선한 자들의 일부로부터 있게 되었다. 앞서 우리는 이것이 이전 교회들의 각 사람 속에 든 진리였음을 공부했다. 주님은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상응으로 인해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다.

주님의 강림은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연역이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이 주님의 강림으로 인한 것이다. 강림 당시까지 인간의 본성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주님의 강림과 더불어 느리지는 하지만 인류의 거듭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주님의 신성화 하심(Glorification)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게 되어 새로운 힘과 더불어 그분의 성령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 즉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인적 거듭남을 통해 전 인류의 거듭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이 과정의 한 부분을 점유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 공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인류의 영적 발달이 진전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만을 고집하면, 우리의 영적 발전은 더욱 지연될 것이다.

본문 1장과 2장은 성탄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동방 박사의 방문을 강조한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서가 시작된 것, 구약성서가 인용되었던 것 그리고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 가는 일 등으로 본문이 구약성서와 연결되어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그분 역시 우리처럼 외적 기억 안에 지식을 획득해야 했음을 표현한다. 본문 1장에서는 주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준다. 이는 요셉이 그분의 아버지가 아니었음과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인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당시 교회의 상태는 헤로데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헤로데는 당시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 사업으로 스스로가 여호와를 공경함을 과시하려고 했을 뿐 실제로는 하느님을 죽이려 했다. 신약의 첫 권이 마태복음으로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 성경은 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연속적인 이야기이므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만약 우리가 율법과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서의 참 뜻 역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이 주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 2) 글자상의 역사로 구약성서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인가?
- 3)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인가?
- 4) 그 땅의 큰 두 부분에 정착된 국가는 무엇인가?
- 5)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 6) 어떤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는가?
- 7) 유다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는가?
- 8) 포로가 된 백성 중 일부는 귀환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9) 귀환한 백성은 무엇을 다시 지었는가?
- 10)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가?
- 11)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12)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13)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14) 주님은 요셉의 꿈에서 어떻게 아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5)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16)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17) 헤로데 왕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 18) 헤로데는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가?
- 19) 요셉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였는가?
- 20) 요셉의 가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 21) 주님이 이집트로 가신 장면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질문의 답

1)신약과 구약성서 2)히브리인 국가 3)열 두 지파 4)이스라엘, 유다 왕국 5)아시리아로 끌려갔다 6)바빌론 7)70년 8)유대주의의 재 건립 9)성전 10)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11)베들레헴 12)마리아 13)하느님 14)예수 15)헤로데 16)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심 17)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18)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사내 아기들을 죽였다  
19)헤로데가 죽은 때이다 20)나자렛 21)성경을 배우심

## 27

# 동방 박사의 방문

### 머리말

이 공과는 절기를 위한 특별 공과이다. 이 공과에서 지적해주어야 할 것은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의 이름이나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말씀에서 세가지 선물이 말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 현인들(박사들)의 숫자도 셋일 것 같다는 대중의 추측이 이어져 오다가 전통으로 굳혀진 것 뿐이다. 이 세 명에게 주어진 이름, 가스팔(Gaspar), 멜키울(Melchior), 벨다살(Balthazar) 역시 전설적일 뿐인바, 말씀의 일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성탄절의 많은 연극 혹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통에 기반 한다. 우리는 성경 교육과정 처음부터(어린 아이들을 포함) 성경과 전통(tradition)을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이는 성경과 전통의 혼동은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성서 본문: 마태복음 2장

2장: 1.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4.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5.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6.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7.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11. 그 집에 들어 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4.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

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
- \* 주님은 때가 찼을 때(in the fullness of time, plenituck temporis)오셨다. 즉 어떤 선과 진리도 인간 중에 더 이상 없을 때 주님은 오신 것이다.

### 상응 공부

금 = 사랑  
유향 = 믿음  
몰약 = 순종  
헤로데 = 마음을 통치하는 거짓

### 해설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인류가 영적으로 하향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접한다. 즉, 어린 아이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첫 상태에서부터 심정과 지성이 그분으로부터 차차 멀어져 갔다. 결국 처벌이라는 공포와 보상이라는 희망을 통해서만 주님께 순종했다. 사람들은 수세기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법들을 그들 스스로가 만든 관습(전통)으로 덮고 법들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쯤에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분의 법과 전통 사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주님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듯 가르친다.”라고 지적 하셨다. (마태복음15:1-9) 이로 인해 주님은 삶의 진정한 길을 보여 주시고, 사람들이 저항하기에는 너무 강해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

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주님은 밤에 태어나셨는데, 이는 그분이 인류가 영적인 밤에 처했을 때 오셨음을 표현한다. 그 때는 물질주의적이었으며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지니고 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생명의 빛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기념할 때마다 새로움을 얻는다. 이는 우리 주위의 상황과 더불어 우리 자신도 변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상태와 세상의 모든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셨음과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사들은 동쪽에서 주님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별이란 천국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높은 천국의 천사들이 높은 차원의 진리로 대화할 때, 낮은 천국의 천사들이 이를 관찰하게 되면 이러한 대화가 그들의 창공(sky)에 별처럼 보여 진다.”라고 말한다. (AR 65, AE 402, TCR 160참조) 박사들이 본 별은 이와 같은 영적 빛이다. 그들의 영적 눈은 주님에 의해 영적 빛을 보도록 열려졌다. 그들의 눈이 열린 이유는 그들이 고대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들을 매우 흠모했기 때문이다. 발람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별에 관해 예언 했으며, 박사들과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 우리가 진실로 슬기로워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별을 인식하고 따라가게 된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행복과 평화는 그 빛 안에서 걸을 때만이 가능하다.

박사들은 주님에게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가져왔다. 우리가 슬기롭다면, 우리는 이 예물들로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표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을 섬김과 경배함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안의 경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역사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타인의 복지를 자신의 복지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삶의 한정된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생일날 그분께 바쳐야 할 예물이다. 그리고 주님은 저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선물을 어두운 과거 속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지금 세상에 계시면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별을 따라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베들레헴이란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이며, 후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셨다. 헤로데는 악과 거짓의 모든 권세를 표현한다. 본문의 헤로데는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서 영적 생명의 시작을 파괴하려드는 악과 거짓의 권세를 뜻한다.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야기는 악과 거짓이 달성할 수 있는 죄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헤로데가 아기 주님까지 파괴토록 허용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늘 거기에 머무르신다. 주님은 한동안 “이집트에” 보존되셨다. 이집트란 우리의 기억적인 지식을 뜻한다. 그러나 그분은 “헤로데가 죽은 뒤에” 즉 시험이 정복된 뒤에 되돌아 오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 2) 주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4) 주님 외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났는가?
- 5)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6) 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
- 7) 그들은 별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 8)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 9) 헤로데는 박사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박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 11) 그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가?
- 12)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 13) 요셉은 주님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 14) 요셉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가?
- 15)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짓을 행했는가?
- 16) 주님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시도록 요셉에게 언제 말해졌는가?
- 17) 그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정했는가?
- 18) 첫 성탄절 날 주님은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 19)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예수 2) 각 년도가 해당됨 3) 베들레헴 4) 베냐민, 다윗 5) 동쪽 6) 별을 보았기 때문 7) 상응에 관한 고대 지식으로 8) 예루살렘 9) 율법 학자들이 예언서에서 발견했다 10) 별의 인도로 11) 금, 유향, 몰약 12)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 13) 이집트 14) 꿈으로 15)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였다 16) 헤로데가 죽은 후 17) 갈릴래아의 나자렛 18) 그분 자신 19) 사랑, 믿음, 순종

## 28

### 세례를 받으신 주님

#### 머리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면모를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7-15절과 14장 1-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또한 누가복음 1장 5-20절과 39-45절 그리고 57-80절, 누가복음 3장 10-14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6절을 읽고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 성서본문: 마태복음 3장

3장: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선포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5. 그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가서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9.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12.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교리 요점



\* 세례란 거듭남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회개와 개혁을 뜻한다.

### 상응 공부

물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생활을 정화함

성령세례 = 주님의 진리로 생각을 정화함

불세례 = 주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심정을 정화함

### 해설

마태복음서는 누가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유아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주님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오셔서 나자렛에 정착했다는 2장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3장은 약 30년이 지난 후 있게 되는 세례자 요한의 선교로 시작된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서도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의 부모가 되는 엘리사벳이나 즈가리야에 관한 이야기 없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술되어 있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술되어 있다.

제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 “지금은 내가 하지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구절이 세례를 강요하는 데에 쓰인 것 또한 사실이다. 주님께서도 받으신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받아야한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이해할 필요는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알려준다. 천국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 삶의 문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 회개란 주님의 영이 우리의 지성으로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정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부

터 온 진리로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것이다. 상응으로 보는 세례는 세례 받은 자의 영을 기독교 천국에 속한 천사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뜻하며,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로 공인되는 행위를 뜻한다. 본문에서 세례는 결과적으로 선한 생활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세례 받는 자들과 그들의 부모 혹은 보호자들은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세례로 열려진 영혼과 천국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어 천국적 삶을 꾸준히 배양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이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로 세례를 행하는 요한은 외적 삶의 재구성을 뜻한다. 재구성이란 계명의 질서 안에 생활을 놓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행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목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 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작은 시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는 못하며 오로지 주님께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임무 즉 행실로 계명을 실천하기위해 정진하면 그것은 ‘물로 받는 세례’를 뜻하며, 이를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뤄지는 성령세례와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선교는 세례 받으신 이후 시작된다. 이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셔서 악과 싸워야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 또한 우리처럼 성서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로 마음을 비추어 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죄처럼 여겨 금하는 단계들을 거치신 것이다. 사실 주님은 회개해야 할 어떤 실질적인 죄도 갖지 않으셨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안 주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셨음은 순진함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분이 세례 받으신 후 그분 위로 내려옴으로써 증명된다.

주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것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통해 그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이시다는 확증을 얻으신 후 이다. 마리아로부터 취해진 마음(mind)과 육체(body)는 무한한 하나님이 아닌 과거부터 사람들이 지녀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육체 속에는 육체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마음이 존재하고,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작용까지 조정하는 ‘자의지’가 있다. ‘자의지’는 타고나는 것으로 그것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그 이유는 ‘현실로 존재하는 자아(real self)’, 줄여말하면

‘자의지’가 조상 대대로부터 누적되어 내려온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 중심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이자 최후의 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상의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적 이기심은 갖지 않으셨다. 주님의 자아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신성한 이타적 사랑이다. 그분은 마리아로부터 입은 외면적 자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지옥에 의해 공격될 수 있었고 우리들처럼 외면적 평면에서 지옥과 싸우셔야 했지만, 언제나 그것을 정복하실 수 있었다.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를 처음 만날 때처럼 외면적 모습만을 보았다. 우리가 외면으로 접한 친구더라도 그를 알게 되면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배워 가면, 우리는 그분의 속, 즉 그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참된 의지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미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또는 하느님이라 불리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로 불리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음을 지상적 삶이 거의 끝날 때까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이것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각자 살펴보도록 하자.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2) 주님은 헤로데로부터 구원되기 위해 어느 곳으로 피신하셨는가?
- 3) 주님의 공생애는 몇세에 시작 되었는가?
- 4)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졌는가?
- 5)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었는가?
- 6)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 7)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8) 그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9)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례란 무엇인가?

- 10) 누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는가?
- 11) 예수를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13)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무엇인가?
- 14)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떻게 말했는가?
- 15) 세례의 세 가지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이집트 3) 30세 4) 세례자 요한
- 5) 낙타 털옷에 가죽 띠 6) 메뚜기와 들 풀 7) 회개하라! 8) 요르단 강
- 9) 물, 성령, 불세례 10) 예수 11) 자신의 무가치함
- 12)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 13) 비둘기 1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15) 회개, 개혁, 거듭남

## 29

### 시험을 받으신 주님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시험을 똑바로 보고 굳세게 싸워나감을 배워갈 때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바람은 총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허사가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고치려거나 제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이나 매를 들지만 쉽게 교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지성과 심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싸움의 결정적 요소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성서: 마태복음 4장 1-11절

4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지장하셨을 때에 3.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8.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1.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다.
- \*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영계에 존재하여서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 양쪽 모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 상응 공부

돌 = 진리, 특히 자연적 평면의 진리

빵 = 사랑의 선

### 해설

주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직 후,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진리에 의거해서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순간 바로 여기에 맞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이러한 시험을 모두 접하기 위해서 유한한 인성을 입으셨다. 우리는 각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이 입으신 본성으로 그분이 투쟁하는 모습은 상기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투쟁의 전체는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천적인 의미를 밝힌 스웨덴봄의 “천국의 신비”와 그 책에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들은 주님의 연속적인 투쟁에 관하여 알려 준다. 이러한 책들을 읽어 보면, 투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님에게 있게 된 것은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바램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생애가 언급된 부분은 성경의 의미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에 속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신 바대로의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분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들이란 사람들의 의지와 반대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발견하려는데 따른 어려움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삶의 측면에서 광야란 사리 추구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갖는 실망 혹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단식하시며 시험과 씨름하셨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이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비유인 것이다.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인류로부터 있는 것으로, “광야”이며 시험으로 짝 찬 상태를 뜻한다. 처음의 상태는 욕을 만족시키고 더 열망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열망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의미 즉 육체적인 열망을 묘사함을 알 수 있다. 선함에 대한 외적이며 자연적인 사상에 만족하려는 상태와 이웃에게 물질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님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사고가 필요치 않다는 생각은 바로 이 시험을 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시험은 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온 진리를 알고 있으나 겸허하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성전 꼭대기란 지적인 오만을 묘사하며, 그 시험은 자신의 악을 변명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상태이다. 가장 깊은 시험은 세 번째 시험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려는 시험으로, 우리의 의견과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태도이다. 무한한 권능을 지닌 주님과 그분의 의지가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험은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잘 표현되어 있다. (마태복음 26:39) 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 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 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은 시험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그분은 세례에 따른 약속을 수행하셨고, 그분의 유한한 인성을 판단하셔서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도록 강요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 속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질서 속으로 배열시키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신 것은 악을 타파하시기 위함이었고, 악마가 성경을 인용한 것은 악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대신 악마를 모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일련의 시험들의 성공적 결말을 보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유한한 몸 안에 신성이 명백해져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게 된다. 그리고 선한 이들은 그들의 자연성을 주님을 섬기는데 주력하도록 놓을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비로소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며, 기적들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

## 질문 정리

1)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었는가?

- 2)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3)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 4)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5)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 6) 주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 7)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 8)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9) 세례 받으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10) 주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 11) 거기서 누가 주님을 시험했는가?
- 12) 첫 시험은 무엇인가?
- 13)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4)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5) 매 시험마다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 16)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될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은 무엇인가?
- 17) 시험이 끝나자 누가 와서 주님을 시중들었는가?
- 18) 세 가지 시험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유다 광야 3)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음
- 4) 회개하라! 5)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7) 비둘기 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 9) 광야 10) 40일 11) “악마”
- 12) 돌이 빵이 되게 해 보라 13) 스스로 뛰어 내려 보라 14) 악마에게 절해보라
- 15) “성서에 ...라고 쓰여 있다” 16) “사탄아 물러가라!” 17) 천사 18) ① 선함을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② 우리가 어리석은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③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 30

# 주님의 첫 제자들

### 머리말

본과를 통해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두자.

### 성서: 마태복음 4장 12-25절

4장: 12.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13.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15.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7.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2.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 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물질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말씀에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다.
- \*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상응 공부

고기 = 기억적 지식에 대한 애착

배 = 넓은 측면의 교리

그물 =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짜놓은 교리

질병들 = 영혼에 있는 무질서들

악마에게 소유 당함 = 자신의 이기심과 악한 포부로 움직이는 것

미친자(lunacy) =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서 더 나은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태

### 해설

주님은 약 30세가 되시던 때에 공생애에 진입하셔서 약 3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계셨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의 공생애에 관한 짧은 구절을 통해 지성과 심정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의 그분의 공생애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오래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서술임을 이해할 수 있다.

공생애 시작 초기에 주님은 첫 번째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후에 모두 사도가 되었다. 열 두 사도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우리 속의 모든 자질과 애착들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 속의 모든 자질과 애착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살아있는 것, 즉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늘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즉시 듣고 따르기 시작하면, 첫 번째 단계인 제자 즉 배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움이 완성되면, 우리는 지상의 하늘 왕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도가 되어 세상에 보내진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며, 구원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올바른 것 혹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사상적 표준은 복음이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갈릴래아 바다에 있는 어부들은 주님의 첫 제자들이었다. 바다는 기억 안에 저장된 지식을, 고기는 각자를 위한 지식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배란 보편적인 교리를 표현한다. 네 어부들이 탄 배는 그들이 양육되었던 교회의 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물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지식과 생각들을 토대로 만든 인간적 방법론을 표현한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교리와 철학 그리고 논리 체계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물을 손질”하는데 많은 세월을 허비한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서 빛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에서 진리들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곧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첫 번째 네 명의 제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의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면, 우리는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며 배웠던 제자들 보다 명확히 주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된다. 말씀 속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스웨덴봄의 사명이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으로 그것의 목적은 인류의 총명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말씀의 속뜻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인간 속에서 나온 추론이 아닌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이다. 인간의 추론은 거짓 명제를 기초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거짓 명제는 대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주님에게서 진리를 찾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근본이다. 이러한 것을 기반하고 출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에 묶이게 되며,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 즉 가시적인 한계 안에 머물고 만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인 단계에 갇혀서 더 이상의 영적 발전이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 단계를 벗어나야만 이 세상에 있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진정한 위치나 그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뿐이다.

주님이 갈릴래아 바닷가에 서서 어부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때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선택이 그들을 역사적으로 저명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독교회의 반석들이 되어 인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었을까? 학술적인 논리나 과학적 사고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론들 대신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찾아 삶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듯 하찮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은 특히 영적 성장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아서 강인한 체력과 고통을 인내할 끈기가 필요하다. 영혼으로 완성된 삶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완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취나 만족감에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것들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바다 근처에 주거지를 두셨는가?
- 2) 그분이 사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주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은 누구인가?
- 4)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5) 그들은 부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8) 주님의 공생애를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 9)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 10) 주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11) 바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고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2) 가버나움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 어부
- 5) 그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6) “나를 따라 오라” 7) 즉각 따라 나섰다.
- 8) 가르침, 전도하심, 병을 고치심 9) 마귀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 10) 사방 각처에서 왔음 11) 기억 안에 모아진 지식 12) 지식에 대한 애착

# 31

## 산 위에서의 설교

## 머리말

산 위에서의 설교 규모를 가늠해 봄으로써 세심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비유는 기억하도록 하자.

### 성서: 마태복음 5, 6, 7장

5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다.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16.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관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관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서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리라. 25.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 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26. 분명히 말해 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29.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35.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회개나 검게 할 수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8.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 주어라. 41.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러는 사람의 칭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46.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올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6장: 1.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2.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5.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온갖 신성화 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30.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야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7장: 1.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16.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29.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의 진리 위에 인격이 세워져야 한다.
- \* 복이란 주님에 의해 주어진 행복을 위한 규율이다.

### 상응 공부

모래 = 인간의 의견들  
 폭풍 = 시련이나 시험

### 해설

산 위에서의 설교는 마태복음서의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서는

6장에만 그것의 내용이 담겨 있어 보다 짧은 형태를 취한다. 마태복음서는 복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되어 주님의 기도와 황금률도 포함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설교를 공부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위한 많은 영적 양식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때 지어 몰려 온 군중의 육신들 이외의 것도 보셨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과 영적 허약함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보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 가셨다. 산에 오른다 함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 사상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행복에 대한 규율을 주셨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때 반드시 배양되어야 할 영적 특성들에 관한 것이었다. 군중들은 설교 말씀에 놀라지 않았는데, 이는 복의 조항들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의 특질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여 산상 설교의 복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불행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주님이 산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다. 화학 성분으로서의 소금은 두 요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소금은 삶에서 진리와 선이 하나로 되고자 하는 바램을 표현한다. 군중들은 선해지기를 원했으나 선한 삶의 방법을 잃은 상태여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본문에서 “소금이 짠 맛을 잃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진리와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꾸준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군중들에게 일점일획의 흠트림 없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분은 외향적 즉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충분치 않음도 보여 주셨다. 주님은 바리사이파사람들에 의해 해석된 빼뺀어린 계명의 몇 가지를 열거하셨고, 각 경우에 영 혹은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첨가해주셨다. 주님은 사람의 심정이 자기추구, 증오, 시기, 탐욕, 혹은 미움에서 친절, 자비, 용서, 순수함 혹은 겸허함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신 것이다.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비유는 모든 설교를 생생한 그림으로 압축한다. 집이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한다. 집을 세워야

할 반석은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들을 뜻한다. 모래란 물에 쉽게 휩쓸리는 것으로서, 불안정한 인간의 견해를 의미한다. 폭풍은 우리의 시험 혹은 시련을 뜻하고, 이것들은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 우리는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슬기로운 결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사를 접할 때 인간의 견해를 설득력 있는 용어들로 간주할 때가 흔하며, “현대 학자들”의 견해를 중시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냉소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내가 스승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스승들의 증언들을 명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시편의 기사를 깊이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3) 때 시험 때마다 주님은 악마에게 어떤 형식으로 대답 하셨는가?
- 4)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 5) 산 위에서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 6)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주님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복을 열거하셨는가?
- 8)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 9) 산 위에서의 설교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6장에서의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1) 7장에서는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2) 황금률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 13)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떤 비유로 마무리되는가?
- 14) 우리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5) 집을 세우기 위한 안전한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인간의 견해는 왜 모래와 같은가?
- 17) 주님은 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 질문의 답

- 1) 광야 2) 시험 받으셨다 3) “성서에... 라고 썼었나니...” 4) 산 위에서의 설교
- 5) 복(blessings), Beatitude 6) 행복(happy) 7) 아님 8) 주님 9) 3장
- 10)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1) 황금률 (the Golden Rule)
- 12) 성서참조 (마태 7:12, 누가 6:31) 13)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14) 우리의 인격 15) 말씀에서 온 진리 16) 흔들리고, 떠나려가고... 통일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7) 그분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 32

## 주님의 공생애

### 머리말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 성서: 마태복음 8장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3.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 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6. “주님, 제 하인이 증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7.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하시자 8.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12.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백인대장에게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시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19.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0.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21.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다.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24.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27.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하며 수군거렸다.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하고 소리 질렀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끼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31.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께서 “가라”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향에서 떠나 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 교리 요점

- \* 모든 치료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
- \*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
- \* 말씀 속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결함 혹은 어떤 약함과 상응된다.

### 상응 공부

문둥병 = 진리의 모독  
 열병 = 내면의 나쁜 바람이 불타고 있음  
 마귀 들림 = 악한 생각과 바람의 노예가 됨

### 해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수행하셨다. 우리는 모든 기적들이 상응으로 수행되었음과 그 수행 과정은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적이란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자연계의 법칙의 근원을 배제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위한 주님의 법칙이며, 모든 자연은 영구적으로 그분의 조절 하에 있다. 의학의 연구는 질병에 대한 자연적 원인을 배우려는 시도이며, 자연을 수단으로 질병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올바르고 유용한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과의 투쟁에서 지거나 의사들이 그들의 치료를 포기한 뒤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주님은 언제나 건강의 근원이며, 이는 육체와 정신 모두에 해당된다. 주님은 의사, 약 혹은 자가 치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 온 이들에게 하느님의 권능이 직접적으로 현존하여 결과를 맺도록 하셨다.

하느님의 권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은 주님이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수행하시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님이 인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주님과 인간 영혼의 내적 결합에 필수조건이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즉 주님을 위해 문을 여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이란 인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과 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많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들은 악의에 찬 분노, 두려움 또는 걱정 근심 등에 깊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심정과 지성으로부터 거절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았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4절과 마태복음 13장 54-58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의 구절에 해당되는 인격의 부류, 하느님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는 이들 혹은 능력의 근원을 하느님 외의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에게는 참 기적이 수행되지 않았음은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해된다. 즉,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사하시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았다. 따라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적의 참된 효과는 이미

믿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는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의 깊은 의미는 그 기적들의 상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 보다 영적 건강을 찾고 계신다. 단지 신체적 건강 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질서를 전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 건강 없이도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축복은 영적 건강이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 선하지도 않고 사회에도 이롭지 못한 이들이 많은 반면 신체적 장애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강인한 의지력을 가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유용하게 된 자들을 보면 진정한 장애는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몇 가지 기적들은 우리 속의 영적 실패(결함)를 지적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병이란 위선을 표현하며, 스웨덴붉은 그것을 “진리의 모독”이라고 명한다. 나병 환자의 피부는 매우 희다. “양털같이 희다”는 것은 순결함 혹은 고결함을 상징하지만, 나병 환자의 흰 피부는 파멸이라는 무서운 병균을 보유한 상태이다. 그 병균은 피부에서 조직으로 확대 되어 인간의 외관을 흉하게 한다. 이처럼 위선(hypocrite)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여 모범시민인 듯 그 사람을 포장하지만, 그의 진정한 자아 곧 진실된 목적이 드러나게 되면 겉으로 보였던 선은 그에 의해 악용된 것으로 사실은 악인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겉치레 대신 주님의 도움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선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풍이란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똑바로 걷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는 선한 심정 속에 있는 의도를 행동으로 꾸준히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표현한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이방인인 로마 제국의 백인대장의 하인이다.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의 위선과 하느님의 율법은 없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순수한 바램을 가진 이방인들의 겸손에 대해 종종 언급하신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백인대장의 온전한 신뢰가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도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다.

열병이란 “속이 타오르는” 상태를 뜻하며, 이는 흔히 분노 혹은 잘못된 느낌으로

야기된다. 손(hand)이란 능력이 행동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의 바램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려 노력한다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밀어내 주실 것이다.

마귀를 쫓아내신 기적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와 힘의 근원으로 여기면 주님이 우리 심정의 악한 열정과 지성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끗케 하심을 묘사한다. 돼지란 육체적 식욕을 상징한다. 우리의 악한 열정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동물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례를 볼 수 있다. 본문의 구절 중 읍내의 사람들이 그들 형제의 병을 낫게 하는 것 보다 그들의 돼지 떼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 2) 본문은 주님의 세 가지 일 중 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 3) 기적이란 무엇인가?
- 4) 주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지닌 어떤 병을 낫게 하셨는가?
- 6) 주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 8) 바다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9)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11) 각기 다른 질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주님이 병을 치료 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 13)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14) 오늘날의 우리는 왜 기적을 요구하고서는 안 되는가?

### 질문의 답

- 1) 가르침, 전도, 병 고침 2) 병 고침 3) 주님께 의해 행해진 굉장한 일들
- 4) 나병, 중풍, 열병, 귀신들린 자 5) 열병 6) 그분의 말씀으로 7) 배를 타셨다
- 8) 풍랑을 만났다 9)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느냐”
- 10)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11) 영혼의 약함과 결점들
- 12) 주님이 낮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환자가 지녀야 했다.
- 13)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적들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 14) 믿음을 강요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 33

###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 머리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 속의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감을 언급한다.

#### 성서: 마태복음 13장

13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로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6.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앎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22.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자라서 이삭이 났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29.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32.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어떤 누룩에 비길 수 있다." 34.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37.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यो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들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서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55.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57.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 교리 요약

- \* 하늘나라의 비유들은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룬다.
- \*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받고 있다.
- \*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 상응 공부

씨 = 말씀에서 온 진리

가라지 = 거짓

진주 =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한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이해

## 해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비유는 평범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로서 쉽게 들리고 이해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비유를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삶의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비유 속의 내적 의미를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어린 시절 우리가 배운 성경 구절 혹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글자적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적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 그 이야기들 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반복해서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문제를 겪거나 어떤 필요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 중 몇 가지 상황이 본문에서 비유의 시리즈로 명확히 나타난다. 첫째는 천국적 삶이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말씀에서 오는 진리로부터 자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성장이 단번에 이뤄져 남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커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열매로 식별되며, 이후에 우리는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분리시켜 해로운 것은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적 인격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는 천국적 인격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마지막 단원은 특별히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위한 적절한 말씀으로 여겨진다. 주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즉 나자렛으로 가셨을 때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았다. 이는 그곳의 사람들이 주님을 단지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계의 일부 인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긍정하지 않는다.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영적 권능의 근원에서 차단되고 만다. 즉, 그들은 주님 대신 자신에게서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 주님과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기독교계의 반석이며, 개인적으로는 천국적 인격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진리의 씨가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우리는 주님만이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주님은 왜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의 비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본문의 첫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주님은 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
- 6)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7) 씨란 무엇인가?
- 8)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9)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면,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그 비유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라.
- 12)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비유 전체가 주는 일반적 교훈은 무엇인가?
- 14)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속뜻을 가진 이야기 2)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 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4) 씨 뿌리는 사람
- 5) 그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 6) 주님 7) 말씀에서 온 진리
- 8) 각양각색의 마음들 9)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10) 일곱 개

- 11)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 12) 우리가 우리의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 13) 천국적 인격의 발달    14)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 34

#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 머리말

주님의 열 두 제자, 특별히 첫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변모(transfigure)」의 의미를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다.

###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17장

17장: 1. 옛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2. 그 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3.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0. 그 때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12.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13.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 교리 요점

- \* 이 세상 삶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살찌울 때만이 중요하다.
- \*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은 진리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 \* 진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 된다.
- \*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삶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 상응 공부

넓은 측면에서의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히고 있는 진리들

모세 = 역사적 측면의 말씀

엘리야 = 예언적 측면의 말씀

## 해설

주님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수행하셔서 그분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능력이 마귀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며 헐뜯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 의해 준비된 그분의 발아래 앉아 있었던 군중들은 그분의 능력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분에 관한 학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음을 16장 14절에서 볼 수 있다. 그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이 구약 성서에 약속된 실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심을 믿었다. 사도들도 이를 믿지 않았음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보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기독교인으로서 기초가 되는 반석이다. 마태복음 16장 16-19절을 읽어 보자. 18절과 19절은 로마 카톨릭교의 교황권 신수설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초기 로마 카톨릭교의 주장은 주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인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처럼 믿게 되었고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나 내쫓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믿어 버렸다. 그래서 초기 로마 카톨릭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 했다. 16장 23절을 읽어 보자.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가 타인들 보다 우월했다면,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는 그분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16장 18절에 있는 바위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고백한 위대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의미한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그 당시에도 적절했으며, 오늘날에도 아주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기독교계의 저술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을 발견하며, 심지어는 그분이 육체로 거하는 여호와이심을 부인하는 이론들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믿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허락된 변모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 질 수 있다. 환상을 보는 필수적 준비는 주님이 그들을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구절 속에 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 관심 위로 끌어 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 연결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세 제자들처럼 모세와 엘리야 즉 주님을 취급하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인 율법과 예언들을 접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글자를 읽어 가면, 우리는 주님만을 보게 된다. 즉,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들의 업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처음의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을 읽어가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만을 듣게 된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참으로 신성화 하시는 주님을 뵈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뵈 수 있는 그분을 그들의 영적 눈으로 지상에서 미리 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환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말씀의 영적 뜻 안에서 주님을 뵈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겸허함과 더불어 시작된다.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이다. 그 후, 빛나는 구름과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제자들이 주님만을 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구름이란 말씀의 글자에 대한 상징으로서, 구름이 빛난다함은 말씀의 글자를 통해 빛나는 것 즉 글자 속의 영적 의미를 뜻한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란 말씀 속에서 선포된 진리의 힘이다. 이 후 제자들은 부활이 있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환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새 교회의 가르침(New Church teachings)이 갖는 정당성 혹은 타당성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언과 그 예언이 세례자 요한으로 성취되었음을 주님께서 밝히신 것에 대해 짚고 넘어 가자. 이 예언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7-15절까지를 읽어 보면, 주님이 이에 대해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주님의 가르침도 잊고 있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 중 하나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복음서의 공부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에 사도들이 말한 것 즉 사도행전이나 그들의 서간집으로부터 확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교회의 결정이나 저명한 신학자의 논술을 중심으로 공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주님을 뵈기 원하면, 우리는 영감된 말씀 (inspired Word)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이 처음 선택하신 네 제자는 누구인가?
- 2) 누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는가?
- 3) 변모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 5) 환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가 대화하고 있었는가?
- 6)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제안했는가?
- 7)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8) 그 뒤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 9)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 10)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2) 모세와 엘리야는 왜 주님과 함께 보여 졌는가?
- 13)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 14) 변모하심의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얼굴이 바뀜
- 4) 높은 산    5) 모세, 엘리야    6) 세 초막을 지읍시다.
- 7) 빛나는 구름과 소리    8) 예수님만 보았다    9)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10)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나이까?”
- 11) 세례자 요한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12) 주님이 율법과 예언들을 구체화(embodiment)하여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3) 회개를 가르치심 (첫 단계)
- 14) 주님을 뵈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입을 믿는 모든 이에게 본문의 환상은 가능하다는 것.

## 35

### 종려 주일

#### 머리말

본과는 교회 절기 공부로 분류 되는데, 이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주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서: 마태복음 21장 1-27절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4.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5.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의 이름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  
 서 일러 주신 대로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엮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많은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길에 퍼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11.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엮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  
 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7. 그리고 예수께서  
 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서서 밤을 지내셨다. 18.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하고 물었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  
 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4.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있지 않을 테지?”하고 의논한 끝에 27.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 교리 요점

- \*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우리 속의 “왕”이다.
- \*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게 된다.
- \* 주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영혼 속의 “성전”을 깨끗케 하실 수 있다.

### 상응 공부

나귀 = 자연적 이성

종려나무 =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원리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힌 사상들

### 해설

주님이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은 친숙하므로,

그것의 의미만을 재고하도록 한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만든 장소를 표현한다. 우리가 실제로 신성한 진리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군림하신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적 추론을 영적 원리 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심을 의미한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벗어 깔아 드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려나무가지란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인식하게 될 때를 뜻한다.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내적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 우리의 거짓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몰아내신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 즉 순진하여 신뢰하는 심정상태만이 주님을 경청하게 된다.

주님이 아셨던 바대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마지막의 시작이었다. 군중들의 일시적 지지는 그분에게 성전을 깨끗케 하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분은 이틀 동안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시며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셨다. 그 예언의 말씀은 새롭고 진정한 교회를 설립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란 당시 교회들의 실상을 묘사한다. 이와 유사한 순간은 우리 삶에서도 발견 된다. 우리가 주님의 왕권과 권능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위선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해 확연히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우리는 그것들이 저주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시험을 겪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즉시 식어버리게 된다. 비록 과거에 주님을 환영한 우리의 심정이 식었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작은 시작인 싹을 버티게 하며 강건케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려주일은 일반적으로 보면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장차 올 어두운 사건에 대한 전주에 불과하다. 주님의 당당한 예루살렘 입성은 실제로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반성해 가야 한다는 것, 시험 중에도 주님만을 보아야 한다는 것, 이기적 욕망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높은 목적들을 강탈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됨을 경고해 주고 있다. 성주간에 우리는 겸허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성과 심정 속에 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로 상징되는 악과 거짓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과 자아 검증을 통해 순진함과 신뢰와 사랑의 심정 상태를 회복시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오늘은 무슨 날인가?
- 2)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 4) 제자들은 나귀 위에 무엇을 놓았는가?
- 5) 주님이 나귀를 타시자 그분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뿌렸는가?
- 6)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7) 주님은 입성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8)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9) 성전에 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이외에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은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 12)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 13)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종려나무가지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1) 종려주일 2)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 3) 나귀 4) 그들의 겹 옷 5) 종려나무 가지와 겹옷 6) 호산나 7) 성전 8)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내쫓으셨다 9)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0)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셨다

- 11) 베다니아 1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 13) 그분만이 그분의 자연적 이성을 신성의 지배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 14)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 36

###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 머리말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건의 순서를 글자적으로 확실히 아는데 중점 한다. 십자가란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면 우리 역시 악의 정복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배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배반하는 것임을 염두 하자. 그리고 과월절 축제 동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과월절을 대신하는 기독교회를 위한 것임도 기억하자.

## 성서: 마태복음 26; 27장

26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4.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6.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9.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하고 말했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4.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하자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20.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25. 그 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하  
 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27.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30.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38.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 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42.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 4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4.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6.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왔다. 48.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9.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2.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55.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 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게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61.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62.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4.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하시고는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65.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66.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하고 아우성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69. 그 동안 베드로는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 와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하고 부인하였다. 71.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계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72.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패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74.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 때에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1.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피



값이니 현금 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하며 7.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10.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옹기장이의 밭 값을 치렀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14.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 때에 (예수)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 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하고 당부하였다. 20.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냐?”하고 묻자 그들이 “바라빠요”하고 소리 질렀다. 22.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23.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25.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29.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겹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36.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  
 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4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42.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 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말고. 43.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  
 였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45.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47.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48.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53.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55. 또 거기에는 멀리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 온 여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싸서 59.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그 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 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하고 말하였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 교리 요약

- \* 십자가란 악을 정복한 주님의 승리를 상징한다.
- \* 우리는 주님이 맞서서 극복하지 못한 시험은 직면하지 않는다.
- \* 성만찬은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거행된다.

## 상응 공부

성찬에서의 빵 = 신성한 사랑

성찬에서의 포도주 = 신성한 지혜

성만찬 =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야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해설

종려 주일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이 아신 바대로 마지막의 시작이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군중들의 지지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드러내 놓고 견책하며 성전을 깨끗이 하실 수 있는 기회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삶의 순간에도 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힘이 되신다고 강하게 느끼면, 우리는 자신들의 죄 혹은 위선을 명확한 빛으로 보며 스스로를 견책할 수 있다. 본문의 군중들처럼, 우리의 이러한 열정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오는 시험 중에 쏟아져 쏟아져 식어버린다. 그러나 잠깐 있어졌던 열정이 비록 적다하더라도, 그것은 거듭나는 삶의 작은 씨로서 우리들 안에 존속하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는 유다를 포함해서 열 두 제자로 표현되는 모든 특질들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 특별히 유다는 당대의 유대 교회의 특질을 표현해 주는데, 유대교란 예배라는 외형물만 존재할 뿐 내용물이 없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때는 과월절이 마감되는 때였다. 이것은 선을 활성화하며 인도해 내는 참 진리는 이미 위선에 가득한 사람에게서 악이 더 큰 발작을 일으키도록 자극할 뿐임을 보여준다. 축제 때에 주님은 성만찬 제도를 설립하셨고,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라고 부르셨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그분의 선행과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유다는 빵과 포도주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항은 주님의 성찬에 참석하여 성찬을 받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어떤 위선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함이다.

스웨덴봄은 주님의 마지막이며 최고도의 시험이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대한 시험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적으로 스스로 구해 내는 대신 죽음을 감수함으로써 시험을 이겨 내셨다. 성경대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냉소에 직면하기도 하며 친구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결국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산 증거가 되며 그것들과 맞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인 것이다. 이것들이 주님의 생애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추종자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며 피를 많이 흘렸을까, 그분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어...”라는 식의 동정심(pity)에 의해 주님에게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용기를 찬양하며 그분의 지상적인 생활에서 명백해진 특질, 즉 신성한 특질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분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또한 주님의 추종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의 증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단지 그분에 관한 인간의 기록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정쩡한 믿음인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서 이용하려고 하여 그분을 자기들의 세상적 사상을 찬양하는 강연장에 걸어 둔 초상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주홍색 옷으로 바꿔 입혀 놓고 그분을 조롱하는 예배를 갖는 내용과 같다.

영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심과 주님을 무덤에 안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의 모든 세부 사항들은 당시 교회의 상태를 묘사한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과 니고데모(요한복음 19:38-40)는 지적측면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를 악용하는 측면을 그리고 로마 군인이나 이방인들은 고집스러운 정도로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단혀있지 않은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짐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통째로 취하지는 않으나 진리의 유용함을 보게 될 때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됴을 그려준다. 주님의 겉옷이란 글자적인 측면에서의 말씀(the Word)을 그린다. 그들이 제비 뽑은 의류(vesture, 가리개 옷)란 속옷(the inner garment)으로, 말씀의 속뜻(internal sense)을 표현한다.

## 질문 정리

- 1) 종려주일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3) 주님은 마지막 과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설립하셨는가?
- 4) 주님은 열 두 제자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제자들 각자는 뭐라고 물었는가?
- 6)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7)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 8)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 9)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 10)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11) 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 12) 베드로에게 자신의 예수에 대한 부인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13) 주님은 누구 앞에서 처음으로 심문 받았는가?
- 14) 누가 주님의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 15) 빌라도는 군중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 17)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묻혔는가?
- 18)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19) 성찬 때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2) 과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 성찬식(Holy Supper)
- 4) “나를 배반하리라” 5) “그게 저입니까?” 6) “가리옷 사람 유다(Juda Iscariot)”
- 7) 키스함으로 8) 도망갔다 9) 주님을 부인함 10) 아님 11) 세 번이나 부인했다

12) 닭의 울음 13) 가야파라는 대제사장 14) 빌라도, 로마제국 총독, 15) 예수를 석방할 것이냐? 혹은 바라빠냐? 16) 십자가에 달리심 17)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18) 무덤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다 19)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

## 37

### 부활하신 주님

#### 머리말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며 시작한다. 종려주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분은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성밖의 베다니아로 가서서 그분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목요일 저녁 주님은 성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을 기념하셨다. 이때에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는 과월절 대신 기독교계에서 거행되는 기념일이다. 주님은 만찬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겔세마니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그분을 붙잡았다. 그분은

대제사장 가야파, 헤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문받으셨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거짓 증거 외에는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고,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 성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 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오’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 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 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12.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13.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교리 요약

- \*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고집적인 것이지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 \* 부활절은 미래의 삶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초월한 사랑의 힘과 거짓을 극복하는 진리가 모든 삶 안에 있어야 함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 주님의 부활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 그분을 뵈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준다.

### 상응 공부

여인들 = 애착들

산 = 높은 관점 또는 영적 관점

### 해설

네 복음서는 주님의 심문,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 등에 있어 조금씩 다른 세부 사항을 알려 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의심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될 수 없다. 어떤 이의 기록을 한 사람이 베꼈다 하더라도 동일 사건에 대해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을 네 명의 증인이 기억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있어서 기록자들이 선택하는 단어 하나까지도 주님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을 것임과 각 복음서는 각각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이점에 별다른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된다.

모든 복음서에서 부활을 처음 발견한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일곱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이다. 이 여인들은 비록 우리의 확증이 의심으로 기울어져 있다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애착은 아직 주님 쪽을 향해 있음을 그려준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여인들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봉사이긴 하지만 주님께 기대고 있다. 그리고 비록 성경이 그들의 지성에는 “봉인되어 있는 책”이 된 채로 들려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한다. 말씀의 글자 안의 영적 의미들을 알지 못한 때는 큰 돌을 굴러 막아 놓은 무덤이나 다를 바 없다.

예수라는 사람이 먼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식의 역사적 용모 만에 기울어져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역사적인 그리스도는 우리 지성 속의 유한한 사상이라는 무덤이 폭발되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어나신 그분을 본 여인들처럼 그분을 경배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본모습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발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내가 시대가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을 보아야만 한다.

갈릴래아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뵈게 될 것이라고 말해졌다. 갈릴래아란 일상생활의 평면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기 위해 세상일로부터 물러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외적인 “선한 일”을 해야만 주님께 가까이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 본문에서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고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일러주신 높은 장소(산)로부터 삶을 관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업무를 그분을 섬기는 기회로서 간주하고 그분의 방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길에서만 우리의 삶은 그분을 증언하게 된다.

맹신적 또는 비판적인 기독교 신앙은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없이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상기케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사상들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말하며,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영감된 말씀(inspired Word)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사야는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불릴 것이다”(9:6)라고 예언했다. 이 구절은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에서 주님이 일어나시는 방법과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어나셔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언급된 날은 어떤 날인가?
- 2)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 3) 사람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한지 며칠도 채 안 되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는가?
- 4) 주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가셨는가?
- 5) 주님은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우리는 성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7)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누가 부활주일 아침 무덤에 먼저 왔는가?
- 9)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천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는가?
- 12)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 13)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이 불신임되도록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 14)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15)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

- 16)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 19) 여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웠는가?

#### 질문의 답

1) 부활주일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3) 그들이 시기심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4) 과일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5) 금요일 6) Good Friday 7) 새 무덤에 놓여졌다 8) 여인들 9) 열려진 무덤 10) 그분은 다시 사셨다 11) 갈릴래아 12) 예수 13) 경비병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트리게 했다 14) 죽은 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15)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6)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17)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갈릴래아 = 일상생활 (outer, everyday life) 산 = 생각의 높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다시말해 생각의 높은 상태인 영적 관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기 때문. 19)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 은 외적 증거들이 의심을 조장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이다.

## 38

### 요한의 환상

#### 머리말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결을 언급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70년 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마지막으로 「디도(Titus)」하의 로마 군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아시아와 그 넘어 까지 흩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서 발달되었다. 초심자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혼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어로 묵시록 (Apocalyps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베일이 벗겨짐(unveiling) 혹은 밝혀짐 (revelation)을 의미한다.

### 성서: 요한 계시록 1장

1장: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2.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5.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7. 그분은 구름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르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 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 섰습니다. 돌아 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같았고 15.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16.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 교리 요점

- \* 부활하시고 신성화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본문 1장에 있는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하는 주님께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 \* 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charter)”이기도 하다.

### 상응 공부

황금등경 =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  
 금띠 = 신성한 사랑

## 해설

요한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이라고 불리며, 신약성서의 예언적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느님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상징화된 주님의 진정한 교회의 건설과 이에 앞서 마지막 심판이 성취되는 그분의 진리의 마지막 처방에 대한 세부사항도 다룬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기독교 시대에 주어졌던 빛 안에서는 이해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하고 불일치된 그 책의 해석이 세상에 떠돌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이 열려야 그것을 총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책은 상응에 관한 교리의 빛으로만 온전히 공부될 수 있다. 그 책은 주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으로 시작된다. 본문에 주어진 그림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붙잡고 있어야 할 주님의 진정한 모습에 가장 가깝다. 요한이 주님을 본 바와 같이 그분은 인간 형체 안에 계신 복음서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눈부신 광채로 휩싸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분을 단지 역사적 이름 혹은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요, 스스로 계신(the I AM) 하느님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교회의 반석은 주님에 대한 교리이다. 주님에 대한 교리를 제외한 교회의 다른 교리들은 이 교리로부터 뻗어 나오는 가지와 같으며 교인들의 삶의 질 또한 이 교리에 달려 있다. 성경공부에서 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주님 외에는 모든 천국을 통하여 천국의 하느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구약성서에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 자주 강조된다. 따라서 강림에 대한 예언은 다름 아닌 창조주 여호와께서 친히 세상에 오실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서 또 다시 명확히 하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시험을 만나 극복하시고 평범한 인간과 같은 사람임을 그분 스스로 느끼시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자신 속에 거하는 영혼으로서의 신성보다는 그의 아버지로서의 신성을 찾으셨다. 그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느끼면 시험 자체도 느낄 수 없게 되어 인간이 겪어야 할 시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험도 신성을 건드리기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trinity)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위의 사실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말이 수많은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요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한 분의 하느님이 세 가지 용어로 분리된 것은 가상(apparent)적이며 일시적이거나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일 뿐 똑같은 한 분임을 알 수 있다. 새 교회인이라면 삼위일체가 지니는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고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웨덴북이 강조하는 새교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삼위일체가 아닌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한 분 하느님과 십계명에 따르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친구요 동반자이심을 스스로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여호와(Jehovah)이시다. 이것은 마치 왕이 자기의 뜻을 하달했으나 신하가 백성에게 그것을 잘못 전달함에 따라 그들이 그릇 판단하게 됨을 발견하여 왕이 몸소 노동자의 옷을 걸쳐 입고 그의 신하들이 모르게 다니면서 그들이 왕의 뜻을 알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은 주님이 육을 입으심에 대한 목적이나 섭리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지극히 단순한 부분이라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때만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다. 아버지께로 되돌아 가셨다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일을 위해 입으셨던 유한한 옷을 벗고 그분 고유의 영원한 영광으로의 귀환을 의미함을 확증시켜 준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바로 그분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과거 지상에서 그가 따라 다니고 모셨었던 친구요 스승이셨음을 인식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 환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상응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여준다. 이것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통째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있어야 함이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쓰러져야 한다. 그 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많은 물소리”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교회 속에 있는 것과 오른 손에 있는 별들 중 하나로부터 이끌어 내진 빛이 높이 세운 황금 등경인 교회



속에 있음을 실감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교회들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제 5장에서 보여지는 봉인된 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말씀(the Very Word)이요, 계시록에서 그 봉인들이 떼어짐에 따른 심판은 우리가 말씀 속의 내적 진리들을 거절하거나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진행된다.

이 환상은 수세기 전 한 사람이 보았다는 정도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환상은 영원히 실재하며 현존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영혼의 눈에 의해 보여져서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를 검토하고 우리가 천사들 편에 설 수 있도록 해 준다. 주님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므로, 우리는 돌아서서 그분에게 경청해보자.

### 질문 정리

- 1) 복음서에는 어떤 두 요한이 있는가?
- 2) 어느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 3) 주님이 죽으신 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 4) 초대 기독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5) 복음서 외에 어느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는가?
- 6)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7) 요한은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 8) 그는 돌아섰을 때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9) 일곱 황금등경 한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10)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1) 그분은 오른 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는가?
- 12)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일곱 등경과 일곱 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분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15) 이 환상에는 왜 여러 차례 빛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 16) 금띠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2) 사도 요한 3) 모두 파괴 되어졌다
- 4) 소아시아 5) 요한 1,2,3서; 계시록 6) 파트모스섬 7)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 8) 일곱 황금등경 9) 부활하신 주님 10) “밭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 11) 일곱 별 1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3) 교회들과 천사들
- 14) 환상을 받아써라 15) 신성한 진리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임
- 16) 모든 것을 묶어주는 신성한 사랑

# 39

##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머리말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공통점이 언급된다. 각 메시지에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 (1) 주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가 거론된다.
- (2) 선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
- (3) 각 교회의 특별한 악들을 견책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악들을 보여준다.
- (4) 각 교회가 그들의 악을 멀리할 때 따르는 보상을 제시한다.

- (5) “들을 귀 있는 자는...”라고 끝맺으며 각 교회가 순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서: 요한계시록 2, 3장

2장: 1.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냈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골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8.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12.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15. 또 너희 중에도 니골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8.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22.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26.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장: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2. 그러므로 깨어 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5.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9.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11.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12.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서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4.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6.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2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1.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 교리 요약

- \* “선행과 믿음 안에” 있는 정도만큼 삶 속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다.
- \*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는 하나뿐이나 인간이 그것을 받는 양상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된다.
- \*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며 서계신다. 문을 열고 닫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상응 공부

에페소 = 생활의 선이 아닌 교회의 진리에 집착하는 이들  
 스미르나 = 생활은 선하나 교리에 거짓이 있는 이들

버가모 = 모든 것을 선한 일에 기초하려고 하나 진리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이들

티아디라 = 선행에 근거한 믿음과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그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들

사르디스 = 죽은 예배

필라델피아 = 선에 근거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라오디게이아 =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

## 해설

스웨덴북은 「계시록 풀이」에서, “이 계시록은 주님으로부터만 있는 것이고, 이는 새 예루살렘인 새 교회 안에 있게 될 이들과 천상천하의 하느님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서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기술되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교리의 진리에 역점을 두고 생활에 선행이 없는 이들이 에페소 교회로 의미되고 있다. 생활면에서는 선하나 교리 면에 거짓이 있는 이들은 스미르나 교회로 의미되고 있다. 선한 일에 교회의 전부를 두고 진리 면에는 아무 것도 두지 않는 이들은 베르가모 교회로 의미되고 있다. 선행 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티아디라 교회로 의미된다. 선행과 믿음이 없어서 죽은 예배에 있는 이들은 사르디스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아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로 의미된다. 자신을 신봉하다가 때로는 말씀도 믿어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은 라오디게이아 교회로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양상들이 주님의 새 교회로 불려진다.” 이 메시지에 대한 일반적 의미와 우리에게 대한 적용은 이보다 더 간략하게 혹은 명확하게 서술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의 간략한 인용문을 참고로 하여 스스로를 위해 메시지의 세부사항을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공부함에 있어서 주님이 각 경우에 대해 그분 자신을 명백히 보이시는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 이 항목을 상응에 기반 하여 생각하게 되면 각자의 특별한 인격에 심금을 울리는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주님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시험에 주목하게 하시고 시험에 임하는 성실도에 따라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 스웨덴북은 "천국은 많은 사회로 나뉘어 있다. 각 사회는 뜻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사회 나름대로 천국에서의 유용을 수행하며 그 이상의 것은 수행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어느 두 사회도 같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각 사회는 하모니를 이룬다. 그 이유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바램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말한 “성전” 또는 스웨덴북이 말한 “가장 작은 형태로서의 교회”를 기억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교파로 된 집단뿐 아니라 선하고자 하는 각 개인들, 즉 종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장을 공부할 때 자신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속의 좋은 점, 약한 점, 우리 안에 거처를 두어야 할 주님의 특수한 면 그리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특별한 인격의 목적을 알게 해 준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각기 그분과 직통 관계를 맺고 있다. 그분은 각각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가능성을 주시고, 이 세상과 천국의 양 세계에서 공히 채워야 할 특별한 장소를 설비해 두신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용(use)을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항을 우리 자신의 선택에 유보해 두셔서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선택에 대한 우리의 자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질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동물로부터 구별된다. 또한 주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만사에서 우리를 위해 선택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수호하신다. 자유란 내적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가 좋아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즉, 외적 삶에서 우리의 모든 바램을 수행하는데 많은 방해가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적 자유이며, 자신의 바램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자유이다. 우리의 근본적 선택은 자아 혹은 주님이다. 우리가 자아를 먼저 놓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의 순종을 거절하게 되어 그분이 경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막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삶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며 그 안에서 삶의 길을 확실히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일곱 교회에 대한 각 메시지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계신다.

### 질문 정리

- 1) 누가 계시록에 기술된 환상을 보았는가?
- 2)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는가?
- 3) 그는 환상의 처음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 4)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 5)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6) 주님은 일곱 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 7)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9) 이 메시지들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 10) 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 11)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기술되는가?
- 12)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문은 어떻게 있다고 했는가?
- 13)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무엇이 나쁘다고 했는가?
- 14)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은 어떠하다고 말했는가?
- 15) 각 메시지는 어떤 말로 끝맺는가?
- 16)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본문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 질문의 답

1) 사도 요한 2) 파트모스 섬 3) 부활하신 주님 4) 제 1장 23-26절을 읽어 보자.

- 5) 일곱 등경 6) 교회들 7) 소아시아 8)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9) 선을 칭찬하고 결점들이 지적되며 약속이 뒤 따른다
- 10) 각기 다른 결점과 보상이 있음 11) 필라델피아 교회 12) 열려있다 13) 미적지근한 것 14) 닫혀있다 1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 16) 들었으면 순종하라 17) 문을 닫는 것 혹은 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 40 거룩한 성

### 머리말

요한의 환상이 마무리되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기쁨을 더해 줄 것이다. 환상의 요점을 염두 하고,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을 끝맺고 있는 본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성서공부 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자아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 안의 선의 발달 혹은 악의 발달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 22장

21장: 1. 그 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 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 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22장: 1.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2.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 얼굴을 뵈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하고 말했습니다. 7.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가까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샹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교리 요약

- \* 거룩한 성에 관한 기사는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형체에 대한 환상이다.
- \* 성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란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을 말한다.

## 상응 공부

거룩한 성의 성벽 = 말씀의 글자적 의미  
열 두 대문 = 선과 진리에 관한 입문적인 모든 진리  
주춧돌 = 천국적 인격을 짓기 위해 기초되는 진리  
보석 = 영적인 빛을 받아 빛나는 개별적인 진리

## 해설

성경은 에덴의 동산으로 시작되어 거룩한 성으로 끝맺는다. 에덴의 동산은 초기 인류의 상태와 개인의 유아적 상태를 그려준다. 거룩한 성은 우리 각자와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을 그려준다. 스웨덴붉은 성경이 “무지의 순진함”에서 “지혜로운 순진함”으로 가는 여행길을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동산은 주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기회와 범주를, 거룩한 성은 우리가 도달 가능한 최고점을 그려준다.

우리는 동산과 도성의 양쪽에서 큰 강과 생명나무를 발견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한 성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생명나무란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원리를 그린다. 이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기쁨(delight)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인간 스스로 진리를 알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삶의 원리로서 후자의 원리를 선택한 이들은 영원히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된다. 두개의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 있어지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태들 그 하나하나의 단계(“달마다 맺는 열매”)에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자양분이다.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나뭇잎이란 주님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만에 의해 인도되기를 바램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생각과 추론이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인식과 바램 안에 있게 되면 만국 백성이 글자대로 치료되어질 것이다. 불의, 암투 혹은 탄압 등은 다른 나무의 잎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거룩한 성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 열 두 기초, 크고 높은 벽, 금과 보석들, 결코 닫혀 있지 않은 진주 문 그리고 주님 자신이 빛이 되심은 천국에 있게 될 우리의 내적 삶에 대한 그림들이다. 우리는 20장 21절에 있는 생명책과 같이 우리 삶의 책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진 삶이란 열려진 말씀의 진리에 따른 삶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왕관에 속하는 새 교회의 삶이라는 뜻으로,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Church of New Jerusalem)”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이다. 우리 각자는 이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말씀을 글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도 공부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밝혀진 교리를 공부하며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창세기 2장 16-17절과 계시록 22장 11-12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삶의 시작에 깔려진 법들이 피할 수 없는 결말로 마무리 됨을 알 수 있다. 악한 삶 또는 선한 삶을 이루는 것, 불행 또는 행복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세상에서 선택한 것은 사후에는 반복될 수 없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 2)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가?
- 3) 계시록 21장 2절의 성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4)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갖고 있는가?
- 5) 천사들은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측정했는가?

- 6) 이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 7) 그 성의 기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 8) 이 성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9) 이 성은 누구로 인해 밝혀지고 있는가?
- 10)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 11)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보였는가?
- 12) 그 강가에서는 무엇이 자랐는가?
- 13) 생명나무와 강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 14)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 15) 우리는 성서의 마지막 절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가?
- 16) 거룩한 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
- 2) 극복해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 새 예루살렘 4) 열두 문 5) 금 자 (gold reed) 6) 네모 반듯 했다. (foursquare)
- 7) 보석들 8) 진주 9) 주님 10)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
- 11) 생명수의 강 12) 생명나무 13) 에덴의 동산 14) 하느님을 경배하라
- 15) (예배의 끝) 기도문에서 16) 교리의 진정한 체계는 열린 말씀 안에서만 발견된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